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20 가을 제28호

드림 제주 21

DREAM JEJU 21

특집1 코로나,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제주, 그 준비를 위한 길

특집2 제주형 뉴딜
코로나 위기와 '제주형 뉴딜' 기회

제주환경의 가치
서귀포에서 '나비박사' 석주명을
추억한다



고향 이미지

강덕환

기댈 곳 있어야겠다고
알몸일 때에도 호주머닐 더듬는 이유 하나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빠앗길 것 죄다 빠앗기고
빈털터리 맨발로 터덕터덕 돌아간대도
비워둔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포근한 자장가를 준비하는 곳

세월의 길으로 따진다면야
나고 자란 세월보다 떠나서 보낸 세월이
더 길지라도
그래서 더더욱 몽클하게 다가오는
그리움의 맨 끄트머리
자랑거리란 게 뭐 있겠냐만
송송 뿜린 돌담 인정처럼 달라붙고
서걱대는 댓잎 소리만 들어도
선뜻 들어서 익숙한 집일 것 같은
결국은 돌아갈 곳, 돌아가서 깃들 곳

시집 [생말타기](한그루, 2018)

“함께 하는 제주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제주의 높고 푸른 하늘은
가을의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을 보면서도
다소 무거운 마음이 앞서지만,

추석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망치질도 예술이다, 어떨 때는 더 세게, 어떨 때는 더 약하게, 여러 해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한 후에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때리는 때가 온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알레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다르다’와 ‘더디다’, 그리고 ‘느리다’와 같은 말들은 결코 ‘틀리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연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삶,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함께 하는 삶이 최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 단절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보고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혁신과 변화 모색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역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들으며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주는 보다 열린 사고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정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대화와 토론이 상존하는 소통의정,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모인다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무는 튼튼한 뿌리가 지탱하고 있어야 온전할 수 있듯이 노력과 인내, 그리고 소통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이제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미 있는 의견이 모아져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cover story



홍지안 作 Andante espressivo... 수월봉 해질 무렵
61.0 × 61.0cm, oil on canvas, 2019

곱다.
노을이
수월봉 풀숲 너머 보이는 바다가
너무 곱다.
바다 위
빛에서 이는 따뜻한 바람은
저 멀리 작은 섬으로 조용히 스민다...

*Andante espressivo : 천천히 표정을 풍부하게

contents

02 사진과 시

고향이미지

04 발간사

“함께 하는 제주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8 특집1 코로나,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제주, 그 준비를 위한 길 _ 10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활동과 조례개정 _ 14

코로나19가 던진 화두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삶은?” _ 18

22 특집2 제주형 뉴딜

코로나 위기와 ‘제주형 뉴딜’ 기회 _ 24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_ 28

“제주형 뉴딜 정책 적극 발굴 필요하다” _ 30



32 도의회는 지금

의정 모니터 _ 34

청탁 금지법 _ 38

의정 칼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문화예술인 직접지원
대책을 요청하며 _ 40

살기 좋은 제주 미래를 위한
코로나19 사태
'복기'가 필요하다 _ 42

'코로나 19' 대유행
온라인 교육!
제주미래 교육 기회! _ 44

열린의회 기고

쉐질이랜 훈디
알아지쿠과? _ 46

삼촌 권당 : 돌담의 속살 _ 48

50 제주 속으로

문화공간 조성

감저 갤러리 카페 _ 50

제주의 노포(老鋪)를 찾아서

친구가 생기는 집, 우생당 _ 54

우리 동네 이곳

고상돈로 _ 58

서해안로 _ 60

포커스 제주

아기해녀 이유정 _ 62

66 제주어로 읽는 산문

우미 훈 사발

68 소확행

폐품을 미품으로 만드는 예술가 _ 68

알고 먹는 식재료

각제기 _ 72

76 제주환경의 가치

'나비박사' 석주명을 추억한다 _ 76

제주의 역사는 돌의 역사입니다 _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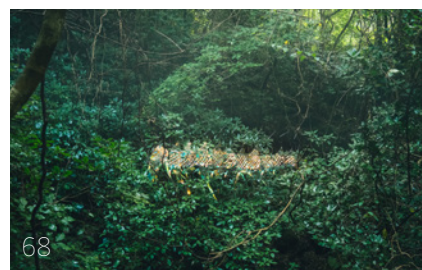
88 제주어 노래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92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94 독자설문







특집1 코로나, 그 이후

불과 몇 달 후면 종식될 줄 기대했던 코로나19의 위기가 해를 넘길 기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느덧 질병의 공포 이상의 삶의 위기로 현실화하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을 놓은 채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곳은 날씨에 어둠이 짙었지만, 고비가 기회이듯 함께 뜻을 모은다면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하리라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제주, 그 준비를 위한 길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활동과 조례개정

코로나19가 던진 화두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삶은?”



포스트 코로나 제주, 그 준비를 위한 길

글 /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COVID-19: The Great Reset

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지난 7월 13일 펴낸 책의 제목이다. 영어사전은 'reset'을 '다시 맞추다', '다시 제자리에 놓다'로, 국어사전에서 '리셋'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 어떤 정의에 의하든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다시 맞추어야 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과거로 되돌아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여행을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삶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만하겠으나, 아예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의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락다운(Lockdown, 이동제한령)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해변에 바다거북이가 돌아오고, 공장이 멈춰 깨끗한 하늘이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며, 과거로의 회귀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독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칼의 노래'를 쓴 작가 김훈은 최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현재를 평가함에 있어, "앞으로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불편하게 되는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더 가난하고 불편한 미래를 받아들일에 있어, 고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훈 작가가 말하는 더 가난하고 불편한 미래는 더 이상의 양적성장을 누릴 수 없는 미래, 즉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올 해 2월부터 지금 9월,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변화된 삶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어두운 전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기에 더 우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전망대로 되어가도록 가만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 그리고 일상의 삶의 변화에 대한 대처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의 관점에서 놓치기 쉬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에 지역에서는 지역 관점에서의 “코로나, 그 이후”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까지 읽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지금엔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그 문제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만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는 처방에서 탈피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과 인력 등 자원이 투입 된다면,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코로나, 그 이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그 이후’를 지향점으로 두고 지금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설계와 집행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바람직한 ‘코로나, 그 이후’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솔직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름” 이다. 그러나 “영원히 모름”은 아니다. 그렇기에 포스트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은 크게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각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제주 민생경제에 2차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관한 대응과, 대학 등의 비대면온라인강의 지원, 감염병 예방 지원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 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고용 하락 및 실업 상승 등의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연속토론회, 코로나19세계정책동향 관련 국제 웨비나(웹web+세미나 seminar=웨비나wevinar), 석학 초청 특강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전망하는 노력과 함께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종합적인 미래담론을 제시하는 도서를 발간하여, 도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나눌 계획이다. 물론 도·행정시·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발굴 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도정을 견인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될 것인가?’, ‘언제쯤 이 상황이 종식될 것인가’ 등 많은 질문이 존재하지만, 아직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때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계속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리고,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활동과 조례개정

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첫 행보는
제주 소상공인 상권 보호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촉구 특별성명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 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7월 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여,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고,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코로나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위해
특허 철회 성명을
특별위원회 첫 안건으로 처리”

최근 나타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또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써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것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다 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임을 지적하였다.

특별성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하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면서, “특별 성명에 보다 힘을 싣고자 의회 민생경제포럼의 16명의 의원들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은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는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01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회의원 면담
- 02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단 워크숍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9월 3일 1호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이 조례안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의를 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조례 대표발의자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강성민, 고은실,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현길호, 고태순, 김경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체가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 중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또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가 던진 화두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삶은?”**

글 / 문준영 제주의소리 기자



지난 9월 10일 무관객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랜선 지식콘서트로 진행된 '테크플러스 제주 2020'

**박현영 소장이 빅데이터·키워드로
살펴본 팬데믹 전후...**
“누가 시간의 주인?”

코로나19가 인류사회에 끼친 중대한 변화는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현영 VAIV 생활변화관측소 소장이 데이터를 통해 일어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포착해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와 제주의소리가 주관하는 신개념 지식융합 콘서트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0’이 지난 9월 10일 오후 무관객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랜선 지식콘서트로 진행됐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크로스 테크놀로지와 제주’였다.

박 소장은 ‘빅데이터로 라이프스타일을 읽다-코로나 시대의 생활변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에 ‘집’, ‘시간’이 등장하고 ‘종일’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한 것에 주목했다.

박 소장은 “코로나 전에는 시간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분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덩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런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공간은 축소되고, 따라서 관계도 축소됐다. ‘남편’이라는 키워드가 ‘친구’라는 키워드를 역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와 같은 존재증명과 세계구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0일 테크플러스 제주에서
'코로나 시대의 생활변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현영 VAV 생활변화
관측소 소장



박 소장은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킬링타임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쿼린틴 해비(Quarantine hobby, ‘격리상태에서 취미’의 뜻)’라는 단어가 생겼고 한국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글쓰기가 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이 모든 상황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코로나는 공간은 제약하고 시간은 무한정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새로운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이 이를 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의 자율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러스 이후 달라진 것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시간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통 시간 약자라고 하면 일이 많은 직장인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메여있는 육아맘이나 경제적·능력적으로 부족해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들이 새로운

‘코로나로 처음 겪어본 것들’이라는
강연 내용 중 발췌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바꿨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시작된 ‘테크플러스 제주’는 매년 개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융합 패러다임을 제주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문화(Culture), 인간(Human) 4가지 키워드(T·E·C·H)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테크플러스 제주’는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의소리TV, 제주의소리 페이스북,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제주테크노파크 페이스북 등 비대면 5개 채널로 송출됐으며, 강연 VOD는 제주의소리 소리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특집2

제주형 뉴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처음일 뿐, 제주인은 오랫동안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삶을 영위하며 전통을 계승해왔습니다. 외세와 시대의 굴곡을 버티며 함께 이겨온 세월 동안 '수놓음 정신'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적인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가장 제주다운, 제주에 걸맞은 '제주형 뉴딜' 정책 수립과 성공적 시행을 이끌어갈 협치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 위기와 '제주형 뉴딜' 기회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제주형 뉴딜 정책 적극 발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와 ‘제주형 뉴딜’ 기회

글 /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제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제주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1차와 3차 산업에 대한 생태를
그린과 디지털 뉴딜을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난국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발 빠른 계획이다.

사실 필자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정말 몰랐다. 가끔 TV에 선전하는 전쟁, 호환마마가 무섭다고 하지만 솔직히 경험하지 못한 탓에 상상 정도에 지나쳐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코로나19라는 공포는 이미 스며들었고 동행하고 있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그린 뉴딜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언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풍력을 이용한 그린 에너지 사업의 대표 사례인 제주도 한경면 풍차해안도로 전경. 최근 이색적인 풍광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지구촌 곳곳이 아우성이며 코로나19 대처가 국력과 국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결국 미래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신 산업생태계를 창조해 나가는 국가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며 이미 정부의 발표에 앞서 발 빠른 지역 특성을 활용한 뉴딜 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계획과 타 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작 제주형 뉴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난 00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타 지방정부의 뉴딜추진 주요 동향을 제주도민과 도정에 피력하였다.

최근 전라남도는 어민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최근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통 큰 상생협약을 결정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핵심 모델로 추진할 것이며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한다고 한다. 신안의 문제만이 아닌 목포, 영암 등 전라남도 서남해 지역을 해상풍력의 글로벌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CFI 2030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표인 4,085MW의 약 2배가량의 발전 용량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최근 육지부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으며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청정 지역의 아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육지부에 비해 섬이라는 환경은 호불호가 명확하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이다.

이미 제주경제를 건인해온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소규모 경제주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며 선순환 시장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필자는 이러한 제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제주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1차와 3차 산업에 대한 생태를 그린과 디지털 뉴딜을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이미 앞서간 부분도 있다. 앞서간 부분은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시작하는 산업은 제주형 모델을 명확히 설계해야 할 것이다. 청정 제주는 최근 코로나 블루로 인한 치유의 섬, 웰리스,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의 섬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제주형 뉴딜로 새로운 성장을 기대해 본다.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 등의 관련 사업은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ICT 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분야로 제주형 뉴딜 정책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글 / 현영종 한라일보 부국장, 서귀포지사장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주식시장발(發)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인접·교역 국가와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비화됐다. 당시 미국 정부의 필사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했다. 국민총생산(GNP)은 1929년의 56%로 떨어졌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실업자도 날로 늘어나면서 1,300만 명에 이르게 됐다.

193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루스벨트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유명한 뉴딜정책의 시작이었다.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은행법’, 금본위제를 대체하는 ‘관리통화법’, 농업 구제를 위한 ‘농업조정법’과 ‘전국 산업부흥법’,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일련의 정책들에 힘입어 건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미국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1937년 GNP·산업생산지수·통화량 등 지표 기준으로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실업률도 제법 낮출 수 있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무너지던 산업생태계도 되살랐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국가발전 전략이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비하는 ‘그린 뉴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 양극화 심화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망

강화’로 대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의 행보도 숨가쁘다. 제주자치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보인다. 이 중 일부는 지난 5일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의 그린뉴딜과 연계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형 농축산식품 뉴딜 설계(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뉴딜정책에 힘입어 대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딜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 불황이 다시 찾아왔으며, 실업률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계속해서 20%를 웃돌았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의 실패에 따른 여파였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제주자치도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도 ‘제주형 뉴딜’이 기존 정책의 재탕·짜깁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에 기인한다. 경제·법률 등 각계의 학자·전문가들이 고루 참여, 아이디어를 보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숙고할 일이다. 

“제주형 뉴딜 정책 적극 발굴 필요하다”

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제주지역에 맞는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8월 5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수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으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내 5인 미만 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80%를 넘고 있는데 (5인 미만 기업은) 통지도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정부 기조를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제주만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있어 제주형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임시직 1만4,000명이 줄어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고, 한국형 뉴딜계획에서 정부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제주도 모든 실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제출한 뉴딜 사업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려고 기획했던 사업들을 포장해 조금 바꾼 것 같다”며 “미래전략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제주형 뉴딜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실국에서 제주지역에 맞는 뉴딜 사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제주도는 이미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왔고,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고, 청정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실행해 왔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큰 탄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실장은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진 중이고,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담당자 회의를 통해 뉴딜사업 발굴을 주문했다”며 “특히 각 부서에 오는 12일까지 지역 주도형 뉴딜사업을 발굴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자료가 수합되면 이달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생생한 현장 이야기

도의회는 지금

의정 모니터

청탁 금지법 Q&A

의정 칼럼

열린의회 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의회혁신기획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9일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혁신기획단 운영에 돌입했다. 의회혁신기획단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 경제회생을 실천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설치 운영된다.

또한 의회 내 원활한 의원 수렴과 의회조직 혁신을 비롯한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도민위기 극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민접촉 강화를 통한 의정 활동 소통 촉진 ▲의회 내 조직체계 및 인사시스템 정비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 기능 보완 및 조정 ▲전문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회교육 훈련 강화 등 의장의 4대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의회혁신기획단장에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을 임명하고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의원 자문단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문경운, 송영훈 의원, 미래통합당 김항국 의원, 미래제주 부공남 의원을 선임했다. 

“도의회 혁신 1호 대상은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의회 혁신의 신호탄이 될 성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주도의원 및 의회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탁이나 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되는 법률안이다.

개정안에선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했으며,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도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모습을

정립하고자 한 일환”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의회 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의원들이 먼저여야 한다”며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조례가 의회 혁신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혁신 2호, 외부강의 기준 엄격하게

제주도의회 혁신 2호로 명명된 안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 강의 기준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할 수 있는 강연·강연·기고 등의 활동을 말한다.

그간 외부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사무처 직원들이 회기 중에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의정지원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

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회기 및 근무시간 중엔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에 응할 수 없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진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및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

도의회 혁신 3호, “의회 전문성 강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전입 3개월 내에 반드시 ‘의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8월 20일 의회 혁신 제3호로 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가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다.

대표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입 3개월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또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하여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예방 현장 찾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정만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9월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을 앞두고 서귀포시 서귀포항과 법환포구, 서귀포수협 등을 방문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좌남수 의장 “전국 시·도의회 순회 방문”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정기회가 9월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개회식 및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제주 의료계 집단휴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8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이로 인한 진료거부·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인에게는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주도정 역시 의료 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진료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탁 금지법 Q & A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

Q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 원씩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 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 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각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3.24.(화) / 8일		4월 제381회 임시회 4.20.(월)~4.29.(수) / 10일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5.21.(목) / 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토·일요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6일 상임위 2일 토·일요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2일 토·일요일 2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6.25.(목) / 11일		7월 제384회 임시회 7.1.(수)~7.3.(금) / 3일		7월 제385회 임시회 7.16(목)~7.28.(화) / 1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3일	• 후반기 원구성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제386회 임시회 8.10.(월) / 1일		9월 제387회 임시회 9.16.(수)~9.25.(금) / 10일		10월 제388회 임시회 10.13.(화)~10.29.(목) / 17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12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월)~12.15.(화) / 30일		12월 제390회 임시회 12.17.(목)~12.23.(수) / 7일		계 11회 - 총11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9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본회의 30일 상임위 39일 예결위 21일	정례회 2회 / 41일 임시회 9회 / 77일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토론회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터넷 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열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

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064-741-2285



의정 자료센터

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064-741-2305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문화예술인 직접
지원 대책을 요청하며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문화예술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 연기 취소에 따른 손실금 최소화와 예술인 용자제도에 따른 원금상환 유예, 이차보전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금융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제주도는 이번 대책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사회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예술행사, 전시, 공연 등 모든 것이 중지된 문화예술계는 생계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렇게 모든 방향이 멈춘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직접지원이 지금 문화예술계에는 간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단된 지원사업에 대한 보전성 지원이거나 용자지원이다. 즉 해당조건에 들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해외사례를 이야기해서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은 창작자에게 3개월간 9,000유로를 직접지원하고, 프랑스는 문화종사자에게 내년 8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본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러 조건이 필요한 선택적 지원제도로는 지금의 재난상황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은 직접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하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 내 문화예술인 상당수가 저소득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상황은 문화예술 본업은 물론 근근이 버티게 했던 부업마저 멈추게 했다. 물론, 어려운 분야가 여기만은 아니지만 4대 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안전망에 들어가지 못한 문화예술인 같은 직군은 그 피해가 더 심각하며, 이에 따른 과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문화도시와 문화예술섬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가 문화예술인의 어려운 현 상황을 돕지 못한다면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섬 제주의 모습은 행정용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살기 좋은 제주 미래를
위한 코로나19 사태
‘복기’가 필요하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바둑에는 승·패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국을 되짚어 보는 복기가 있다. 패자가 감정을 누르고 복기를 하기란 쉽지 않음에도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거쳐야 잘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기를 잘해 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수를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19로 일상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생활방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힘들고 지친 순간을 복기하며 ‘더 나은 처음’이 될 수 있는 미래 제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설치의 필수적이며,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인력, 방역물품 공적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 특성별 감염병 관리체계 및 대응 매뉴얼 구체화 작업 등 상시적 대비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고 기계와 AI에 익숙해지는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립 잡을 것이다. 비대면 생활방식의 확대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그에 따른 익숙한 환경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과 기회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발생하고, 물리적 거리두기 자체가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인류 역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치명적이지만 많은 것을 바꾸기도 했다. 비이성적인 것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극복과정에서 의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지의 전염병과 바이러스는 진화 하며 인류의 진화와 맞물려가고 있다.

세계는 이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제주미래와 전염병과 바이러스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복기’가 필요한 지금이다. 🍀





+ ‘코로나 19’ 대유행 온라인 교육!

제주미래 교육 기회!

Lorem ipsum...



강시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생활 방역’이라는 단계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개학을 연기한 지도 2달이 다 되어가고, 5월이면 전면 개학을 기대하는 이때 ‘온라인 교육 개학’이라는 초유의 처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당황 그 자체다.

온라인 교육은 ‘원격수업’ 방법밖에 없다. 이 수업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낡은 PC 등 부족한 하드웨어는 물론 원격수업 경험이 없어 준비부족과 미숙함은 당연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무선 인터넷망, 태블릿 PC 등을 꾸준히 보급해 왔기에 타시도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교사들의 발 빠른 적응과 적극적인 수업준비를 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제주에서는 원격수업을 쌍방향 실시간 수업 중심 모형, 콘텐츠 중심 모형, EBS 활용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구글 클래스룸 등 구글이 만든 플랫폼, 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한 에드워드(edwith), e-학습터, 네이버밴드 등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기에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원격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교과나 수업목적에 맞는 가능하면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자.

둘째,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플랫폼 하나를 중심으로 하자.

셋째, 사전 수업녹화는 매시간 하지 말고 중요한 주제를 학습할 때만 만들자.

넷째, 일반교실은 담임(교과)이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영상 녹화 녹음 등 콘텐츠 제작, 수업자료 녹화를 위한 스튜디오형 교실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교원 개별연수부터 관리자 연수까지 지속적이어야 하고, 자율성에 기반을 뒀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가 진정되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원격수업은 교실로 가져와 미래형 스마트 교육을 하는 기초가 되게 하자.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학교 교육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미래형 교실교육이 될 것이다. ☺



쉐질이랜 혼디 알아지쿠과?

소길리 쉐질을 중심으로

글 / 김원순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장



에월읍 장전리, 우수암리, 소길리 3개 마을 합동으로 2011~2015년경까지 녹고피 권역권사업의 일환으로 쉐질을 멩그라십주. 당시는 제주올레가 인기가 있을 때라 녹고피 권역권사업에서도 길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홍보하며 마을도 발전을 꾀했던 것이다. 이참에 3개 마을이 환경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다. 쉐질은 장전리사무소 마당에서 출발한다. 과거 장전리가 발전하기 전(일제강점기 시대 정도까지) 소들이 걸었던 길을 중심으로 하여 3개 마을을 통과하게 준비하였다. 장전리 사무소 출발-장전마을 골목길-장전리 포제단-장전, 소길 경계지점인 사거리 지나 소길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가 소길리 본향당이다.

소길리 본향할망은 상귀리 소앵동 황다리케 송씨 할망 큰딸이라고 전하고 있다. 송씨할망과 하르방이 모여 있는

당으로 과거에는 매년 정초에 신과세도 다녔고 멀리 시집갔던 아주머니들도 새해 들어서 할망신디 새배 호래 오명 지물도 돈돈히게 챙겨왔다고 한다. 지금은 폐당 직전이고 몇몇 단결들만 다니고 있다는 흔적이 신목에 걸려 있다. 신목은 300년 정도 되었던 풍낭이었는데 죽어서 대체 목으로 새끼풍낭 한그루가 심어 있었다. 두 번째는 당에서 200m 위에 있는 방사탑이다. 방사탑은 마을에 사악한 액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소길리 마을에서는 마을 서북쪽이 허하다고 하여 세웠다.

이어서 쉐질로 간다. 소길리라는 마을명도 바로 이 쉐질에서 소길로 쓰고 있는 것이다. 방사탑에서 5분여 거리에 있는데 아주 좁작 힌 골목길이다. 큰 쉐 한 마리 겨우 지날 정도로 약 1km 정도 이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밭과 밭 사이를 자잘한 자

갈로(밭에 농사지으면 나온 돌맹이들) 잣백을 만들어 그 위로 소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 현재도 100m 정도 남아 있다. 소길리 쉼도 다녔지만 소길리 아래 엄쟁(구엄, 중엄, 신엄-엄쟁은 소금밭 염장을 말함)이 사람들이 새벽에 쉼물앙 이질로 지나다녔다. 그렇다면 엄쟁이 쉼덜은 무사이질로 땡겨싱고 마씨? 엄쟁이 목장은 바리메오름 자락에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장에 쉼을 올리젠 허민 이른 아침 동도 트기 전이 쉼물앙 올라와사 그날로 목장 강 쉼놔동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했다. 잣질 끝 지점에는 고드래라는 이름을 가진 물통도 있다. 이 물은 소량으로 나오는 용출수다. 항상 떠다 먹는 물이 아니고 마을이나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고드래 물로 해야 영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했다. 마음에 정성이 엿보인다. 가뭄이 지속되면 유수암물을 길어다 먹었다.

쉼질 즉 잣질을 지나면 명덕동산이 나온다. 지형이 아주 높다. 지금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조선대에는 국상이 나면 며칠 동안 이 동산에서 한양 땅을 바라보며 곡을 했다고 한다. 후자로 오면서 이 장소를 명덕동산, 망덕동산, 망배단, 망곡단 등으로 불렀다. 애월읍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을단위로 올라와서 북향하여 곡을 했고 그 자리에는 곡반제담(哭班祭壇)이라는 비석이 세워 있다. 주위는 제주현무암 석으로 네모지게 둘렀다. 1926년 순종이 돌아가시자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와서 곡을 했다고 한다. 불과 100년 전

일이다.

곡반제담이 있는 명덕동산 아래는 고려 때로 추정되는 석관묘가 있다. 현재 제주에 석관묘는 여기 한 기뿐일 것이다. 현무암을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서 지상위로 집 형태로 만든 무덤이다. 무덤길이 232cm, 너비 90cm, 높이 72cm로 직사각형 돌 11개를 짜 맞춘 무덤이다. 이 돌무덤은 전부 해체되어 좌랑못(현 위치에서 1km 떨어진 장소)에서 마을 아낙네들 빨래판으로 쓰던 것을 지나는 길손이 아무래도 일반 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에서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 찾아서 모았다고 한다.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추정한다면 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먼 곳으로 가져갈 일은 없을 것이다. 좌랑못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소길리 쉼질을 넘어서고 명덕동산과 좌랑못을 넘으면 유수암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총 길이 17km 정도 되니 어른 걸음으로 4시간은 족히 걸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포장된 길도 있지만 포장이 안 된 길들이 많이 남았으니 시골향기를 맘껏 취하며 걷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또 녹고피 권역권사업으로 큰녹고피와 작은녹고피를 이어서 상жат길도 개통하였다. 오름 두 개를 동시에 오를 수도 있고 오름으로 가기 싫으면 둘레길만 걸어도 3시간은 걸어야 마무리 할 수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жат길을 소개하고 싶으며 상жат길 출발점은 켓물오름 주차장이다. 작년부터 켓물오름은 인터넷에 홍보가 되면서 주차할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탐방객이 사철 북적거린다. ☺



곡반제담 비석과 소길리 마을길 안내판



삼촌 권당 : 돌담의 속살(內肉)

글 / 이문호 전북대 초빙교수



며칠 전, 98세 노모가 갑자기 딸 문(門)을 닫아, 요양병원 입원 20일 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두세 달 전에 친근하게 지내는 우석이네가,

“삼촌 할망, 어떻 살았쥬가?.” 묻는 말에 “난 느네 어명을 의지(依支)하고, 느네 어명은 날 의지 하명 살았서.” 이 말 씬이 마지막 유언이 됐다. 애경사가 나면, 우리고향 제주에는 삼촌 권당과 겹부조 풍속이 육지와 다르게 존재한다.

돌 많은 제주에 돌문화가 사람 사는 사회에 뿌리내린 풍속이다.

제주에서 올레담, 발담, 장담 등은 모두 곡선 돌담이다. 돌담은 밭이나 집울타리 경계를 표시하면서 소나 말의 침범을 막고 바람과 불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제주에서 ‘돌(石)’의 삼촌(uncle)은 ‘바람’이다. 삼촌은 두 굽돌 위에 돌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삼각형의 삼(三)이고, 촌(寸)은 피붙이 마디다. 바람이 돌과 돌을 붙였다. 제주사람들은 발담을 쌓는 것도 발돌담을 ‘붙인다’라고 한다. 석수(石手)쟁이는 ‘사람의 살(肉)을 붙이듯, 돌을 나풀나풀하게 붙이’라고 말한다. 제주 바람은 연평균 초속 4.8m/s로 늘 분다. 흩(외)담인 발담은 불규칙(random)하게 열기설키 붙여진 돌담 사이의 틈새, ‘돌트멍(window)’으로 바람이 불고 지나지만 발담은 끄떡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돌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돌의 이웃과 의지(依支)하고 서로 버티는 상생(相生, Reciprocal Cooperation)과 돌담이 연결체의 대칭(Symmetry)특성 때문이다. 이것은 돌과 돌이 ‘수눌음(石礪, Networks)’인데, 제주 특유의 사회관습 ‘권당(Social Custom Family Networks)’도 돌의 수눌음에서 왔다. 수눌음(手礪)은 ‘손들을 놀다’의 뜻이고, ‘놀다’는 ‘쌓다’의 의미다. 제주 사람들은 손들을 붙여 서로 도와가며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을 일궈왔다. ‘놀’은 ‘보리놀’, ‘출놀’ 등으로 쓰이며 보리나 소꼴을 원기둥으로 쌓은 것을 말한다.

한편, ‘권당’의 어원은 동사 ‘괴다(밑을 받치다(Support))’에서 비롯된 친족이란 뜻의 제주방언이다. 역사적으로는 돌문화에서 밑을 받치는 형태를 ‘권돌’이라고 하는데, 권돌은 고인돌에서 비롯됐다. 순우리말인 고인돌은 고대 부족국가 지배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을 의미하며, 이 단어의 유래는 큰 돌을 받치고(Support) 있는 것을 의미하는 ‘권돌(支石)’ 또는 ‘고인’ 돌에서 비롯됐다. 돌을 붙이면 ‘돌담’이고, 밑받침 되는 돌은 ‘굽돌’ 또는 ‘권돌’이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돌을 다시 붙여나가면 ‘권담(礎牆)’. 즉, 돌과 돌의 ‘수눌음(石礪, Neighbor Cooperation Culture)’이다. ‘권담(礎牆)’은 제주인의 관습상 발음 변화에 따라, 할머니가 할망이 되듯, 구어체가 되면 권당이 되며, 권당은 제

주인의 돌담문화에서 꽃 핀 제주 특유의 수눌음 문화(文化)의 사회 연결관계 공동체망(Social Networks)이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이 권당에 그렇게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척박한 환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웃 간 촌락내혼(村落內婚)으로 연대(連帶)할 수밖에 없었다.

권당의 탄생 배경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국가 사회적 현상 때문으로, 제주는 삼재도(三災島)라 불릴 만큼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로 흉년이 지속되었다. 특히 조선 영조(1739년)와 정조 때 심했다. 김만덕은 굶어 죽는 백성을 위해 구휼(救恤)을 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해 물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주도엔 출륙금지령이 200년간(1629 ~ 1823)이나 내려졌다. 몽고 원나라의 제주지배는 100년(1273 ~ 1373)이나 지속됐고 35년간의 한일합병(1910. 8. 29 ~ 1945. 8. 15)과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4·3 7년간 고난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항상 바람 부는 길목의 제주에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왔고 권당 문화 탄생의 배경이 됐다. 제주에서 늘 부는 바람은 24시간 제주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삼촌(?)이고 윈드 캐슬(Wind Castle)이다. 윈드 캐슬은 한라산-오름-발담으로 이루어진 바람의 성(城)이다.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相扶相助)로 부조(扶助)를 하는 것도 삼촌, 권당, 돌담의 속살(肉肉) 문화가 빚어낸 공동체의 의지(依支)다. 1406년 태종 6년 문방귀(主簿 文邦貴), 1411년 고득중(高得宗, 1388~1452) 한성부 판윤(현 서울특별시장)이 제주도내 처음으로 장묘를 했고, 후에 접(接)담으로 돌담을 쌓아 우마 및 산불을 막는 산담이 생겨났다. 접담이 제주구어체로 ‘겹담’이 됐다. ‘겹부조’란 말도 “접(接)부조”에서 온 말이 아닌가? ☺



달콤한 시간의 넝쿨이 자라는 곳 감저 갤러리 카페

글 / 강진희 작가 사진 / 편집부



제주에서는 할머니께서 “감저 가져오라”하면, 감자가 아닌 고구마를 가져가야 한다. 제주어 ‘감저’는 표준어로 고구마를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자는 ‘지슬’ 혹은 ‘지실’이라 불린다. ‘땅속의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地) 실(實)은 척박한 제주 땅 위에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식량이 되어주었다면, ‘땅속의 단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감(甘) 저(低)는 넉넉하지 않은 제주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생활 경제의 밑천이 되어, 저마다에게 달콤한 단꿈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오래된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은 재생문화공간

고기 낚는 것과 물질과 농사밖에 모르던 제주 섬 땅에 감저를 원료를 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약칭 동척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일제에 의해 1943년에 설립된 이후로 감저 재배는 공업용, 식용, 사료용 등 그 이용도가 광범위해졌고, 재배면적은 확대되었다. 정방폭포 절벽 위에까지 감저공장이 지어질 정도로 용천수가 흐르는 제주 마을에는 어김없이 감저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재우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 감저 갤러리 카페도 그 당시 제주의 수십 개의 전분공장 중의 하나였던 곳이었다. 감저 재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인 196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재우 대표의 아버지이신 김태홍 사장님이 1969년에 인수하여 ‘태창산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1988년까지 운영되었던 곳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고구마 전분을 이용하여 생산하던 당면과 주정 원료가 값싼 중국 수입산에 밀려 서서히 쇠퇴기를 맞아 공장기계가 멈춘 이후 30년간의 긴 세월을 그대로 묵혀두었던 곳이다. 2007년에 다시 제주 고향으로 내려온 김

재우 대표와 그의 가족이 오래된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듯, 이곳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을 준비하여 감저 갤러리 카페를 2018년 6월 28일에 열었다.

2,000평에 가까운 너른 공장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이곳은 옛날 전분공장의 건조장은 카페로, 공장 창고는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다. 열심히 감저를 갈던 기계들이 미동도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공장과 감저를 침전시켰던 야외 수조는 그 시대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보존되어 있다.

그의 기억 보관소

시원하게 뺀 공장 골조 지붕을 이고 있는 너른 카페 안 곳곳에 놓여있는 공장기계와 부품들은 마치 세월에 세어가는 흰머리 마냥 붉은빛으로 점점 더 짙게 녹이 슬어가며 늙어가고 있다. 매끈한 긴 나무 테이블 옆에 끝자락에 있는 검붉다 못해 까맣게 녹이 칠해진 낡은 옛 금고 안은 인부들의 일 삶과 뺨뺨하게 숫자가 적힌 장부가 그득했을 것이다. 의자에 앉아 벽면 가득 유리창으로 투영되어 오는 야외 시멘트 수조들을 바라다보면, 흑백무성영

화의 필름이 돌아가듯 그 시대의 전분공장의 분주한 움직임이 그대로 생생히 상영되는 듯하다. '수매된 고구마는 전분공장으로 옮겨져서 원료를 세척한 뒤 마쇄(磨碎)하고 물을 첨가해 죽 모양이 되게 한 뒤, 체를 이용해 전분유와 전분박(전분을 빼 내고 남은 부분)으로 분리한다. 분리된 전분유는 침전시켜 분리하고, 다시 원심분리한 뒤 전분을 정제한다.' 내 머릿속이 전분공장이 되어 부지런히 한차례 상상의 가동을 하게한다.

“국민학교 때는 학교에 감저 방학이 있을 정도로 감저를 수확하는 10월에는 모든 대정 사람들이 바빴어요. 추수철부터 겨울 끝자락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공장에 모여 왈자지껄하게 일을 했던 신나고 활기 있던 모습을 기억해요”라고 김재우 대표는 회상한다. 우리에게는 박물관 같은 이곳이 그에게는 기억 보관소인 것이다.

초록 담쟁이덩굴 안에 감저갤러리

카페를 나와 고양이가 경쾌하게 오가는 길 너머에는 초록 담쟁이덩굴이 벽면 가득 뒤덮인 감저갤러리 건물이 보인다. 공장 창고였던 이 건물을 오랫동안 담쟁이가 품고 다독이며 지켜온 듯하다. 초록 덩굴 사이로 틈새처럼 나 있는 문에 들어서면, 작품을 벽마다 안고 둘러있는 고즈넉한 갤러리 안에 서 있게 된다. 그날은 「땅의 풍경, 제주 관정」 김성용 사진전이 진행 중이었다. 옛 제주의 메마른

땅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었던 생명 우물인 제주 '관정'의 사라져 가는 그 모습을 보관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 담긴 사진전이다.

이 공간은 실질적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이기도 한 장지산 씨가 예술가들에게 마음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도움을 주려고 만든 갤러리이다. 개장을 한 2018년 6월 여름부터 매달 전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작년 5월에는 “서귀포 문화도시 청년작가 작품 온라인 오프라인 전”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이곳 감저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늦가을쯤에는 어느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독일 작가의 사진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다. 독일 사진작가가 제주를 방문하여, 한 달간 제주를 누비면서 이방인의 시선에 담긴 제주의 모습을 전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확산으로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벌써 우려로 다가온다. 수많은 전시를 지켜보았던 김재우 대표의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중 하나는 작년에 열린 제주사진작가 협회장인 김종현 작가의 「기억 속의 제주」이다. 1980년대 옛 제주가 흑백사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이곳 감저갤러리 카페와 닮아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작년 10월에 열렸던 터키 사진전이다. 음악과 파티가 어울려진 색다른 문화의 사진전이 이국적 터키의 모습과 함께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감저갤러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예술가이든 그들의 작품과 함께 스스럼없이 관객을 집 손님처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곳에 성장하고 있는 한 예술가 김현서

너른 땅 한편에 많은 예술가들이 스쳐 가는 감저갤러리가 따로 자리하고 있다면, 감저카페 내부는 오직 한 예술가를 위한 갤러리 공간이다. 그 예술가 이름은 김재우 대표의 둘째 아들 김현서이다. 도자기와 그림을 배우면서 그렸던 그의 작품들이 카페 곳곳에 오래된 공장 물건과 함께 전시되어있다. 강렬한 색채와 선이 인상적인 그의 그림들은 녹슨 물건들 사이에서 마치 고목나무에 핀 새순처럼 싱그럽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딘 둘째 아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너른 터를 제공하고 싶었던 이곳은 이제 한 청년의 너른 성장 터가 되었다. 이곳에서는 호기심이 가득한 고양이들을 두 군데에서 만날 볼 수가 있다. 가동이 멈춰진 녹슨 기계 공장 주변과 그가 그린 그림 속이다. 반짝이는 큰 눈동자를 지닌 유쾌한 고양이들이 그의 그림 속에서 언제나 개구진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준다.

멈추지 않는 지역 문화 발전소

작년 이곳에서 음악그룹 옥상달빛 공연이 열렸다고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김재우 대표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옛 제주 이웃들이 부지런히 가동해서 지역 경제 발전소 역할을 했던 이곳이 지금은 지역 문화 발전소로 가동이 되어 좋은 영향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감저갤러리카페는 당시의 제주 산업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근대 건축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 고टे스러운 외형 안에는 그 시간과 함께 3세대의 이야기들이 한켠 한켠 퇴적되어 소복이 쌓여 있는 곳이다. 각 세대마다 꾸는 달콤한 단꿈들이 활짝 피었다가 기억으로 지고, 다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저마다의 개화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곳은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우리의 시간이 있는 곳이다. 



03



04

- 01 초록 담쟁이덩굴이 벽면 가득 뒤덮인 감저갤러리 건물
- 02 한쪽 벽면에 전시된 옛 감저전분공장의 흑백사진들
- 03 카페에 전시되어 있는 둘째 아들, 김현서 씨의 작품
- 04 감저갤러리카페를 가동시키는 원정화·김재우 씨 부부



3대째 우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고지훈 대표

대를 이어 100년 서점을 꿈꾸는 친구가 생기는 집, 우생당

글 · 사진 / 편집부

1945년, 광복을 맞던 그해에 우생당이 생겼다. 물론 그 이전, 제주도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소판서점이 있었고, 제주도민이 세운 영주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생긴 두 서점 모두 광복 직후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비로소 광복을 맞으며 제대로 문을 연 제주도 1호 서점이 바로 우생당이다. 당시 제주 상권의 가장 중심지였던 관덕정 부근에 문을 연 뒤로 올해, 개점 75주년을 맞이했다.

우생당은 단순히 오래된 세월뿐만 아니라, 제1대 대표 고순하 씨의 대를 이어 아들 고현권 씨(70세), 손자 고지훈 씨(45세)에 이르기까지 3대를 거쳐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노포(老鋪)의 대명사이자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여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후텁지근한 기운이 남아 있는 9월 어느 날, 필자 또한 세월의 기억을 떠올리며 학창 시절 자주 들렀던 우생당을 오랜만에 찾았다. 참고로 필자는 ‘우생당’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서점 이름이라기 보단 빵집 이름 같다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던 어릴 적 기억이 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대 대표 고지훈 씨가 서글서글하고 인심 좋은 미소를 띠며 서점 안 한편으로 자리를 안내했다. 그렇게 친구가 생기는 집, 우생당에서 마치 친구처럼 고 대표를 만나 ‘우생당’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해 우생당의 옛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우생당은 友(벗 우), 生(날 생), 堂(집 당). ‘친구가 생기는 집’이라는 의미인가 봐요. 할아버지(창업자, 1대 대표 고순하)께서 지으신 이름인데, 참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파는 곳의 의미보다는 책을 통해 사람을 만



나는 곳의 의미를 담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 할아버지께서는 해방 이전부터 서점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광복이 된 직후에 지금의 우생당을 여신 거죠. 교육과 관련된 일도 많이 하셨고, 당시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출판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우생출판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셨죠.”

잠시 서랍을 뒤적이던 고 대표가 “이게 그때 출판하신 책 중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두 권이에요”라며 비닐랩에 쌓인 오래된 된 책 두 권을 건넸다. 세월의 향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책에는 ‘우생출판사’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더 많은 책이나 자료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겨우 남은 게 지금의 책 두 권이라며 아쉬워했다.



01 1950년대 우생당 서점의 모습. 당시 우생당 대표 고순하 씨의 제주 문인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문학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사진으로 읽은 20세기 제주』 발췌

02 우생출판사가 출판한 책들. 왼쪽 '象牙塔(상아탑)'은 1955년 출판된 소설가 계용묵의 수필집이고, 오른쪽 '오돌또기'는 (전)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을 지낸 진성기(秦聖麒)가 1960년에 편찬한 제주도 민요집이다.

실제로 고순하 씨가 설립한 우생당과 우생출판사는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는 1950~60년대, 이른바 '제주문학의 부흥기'에 알토란같은 역할을 했다.

전쟁을 피해 제주도로 내려왔던 소설가 계용묵이 자주 다녔다던 칠성로의 예전 '동백다방'과 아울러 우생당과 우생출판사는 든든한 경제적 후원처가 되어주었고, 문학동인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1953년 발행한 계용묵의 문학동인지 <흑산호(黑珊瑚)>는 고순하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고, 종합교양지 <신문화(新文化)>의 창간도 함께했다. 우생출판사를 통해 계용묵의 시 동인지 <시작업>, 수필집 <상아탑>, 번역 소설

<검둥이의 서름> 등 다수의 책을 출판하며 계용묵 개인뿐 아니라 당시 제주문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인 박목월도 제주에 머무는 동안 우생당을 자주 찾곤 했고, 그 당시 지어진 시가 '제주읍에서는 / 어디로 가나, 등 뒤에 / 수평선이 걸린다'로 시작하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배경>이라는 시다.

우생당과 할아버지 고순하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께 직접 들은 얘기도 있지만 언론이나 학술자료를 통해 알게 될 때도 많으며 아직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우생당의 옛이야기와 달리 서점 근황에 관해 말하는 내내고 대표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움이 가득했다. 아니나 다를까 온라인 서점과 스마트 기기에 밀려 서점을 찾는 고객들이 예전과 달리 급격히 줄어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서점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서점을 운영한다면 다들 괜찮게 산다고들 했었죠. 저 또한 고지훈이라는 이름보다 '우생당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매체도 다양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책 구매가 보편화 됐으니까요. 독서량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집계도 있고요. 예전엔 1층, 2층을 모두 서점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2층은 비워둔 채 1층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 서점은 학교 교과서를 취급하는 탓에 매출이 좀 나은 편이니 제가 힘들단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라며 아쉬움을 달래는 고 대표에게 대를 이어 서점 운영을 결심하고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특별하다고 할 건 없고, 제가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잦은 병환으로 아버지께선 병간호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서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셔서 제가 맡게 됐죠. 학창 시절부터 항상 봐오던 일이 서점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기에 중도에 그만

둘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우생당 아들’에서 ‘우생당 사장’이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이며,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더군요. 지금도 매사에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라며 처음 서점 운영을 맡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아직도 선하다며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은 손님이나 사연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분들이 들러서 아직도 서점이 그대로 있어 반갑고 다행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그대로’라는 말이 한편으론 제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다들 변해가고 점차 발전해 가는데 저만, 저희 우생당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는 걱정스러운 부담이요. 옛것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과 옛날에 정채된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뭔가 새로움을 더하고 싶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다고 어쭙잖은 기획의 흥내 내기식 변화는 결국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차근차근 짚으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라며 소탈하게 웃어 보였다.

앞으로 우생당의 모습이 어땠으면 하는지 묻는 말에, 아직은 그저 생각일 뿐이고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공부도 더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앞세우며 “우

생당을 이름 그대로 친구가 생기는 집,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책이 친구가 되고,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때론 책이 아니어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생당을 이름 그대로 친구가 생기는 집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생각이고 바람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자녀에게 대를 이으며 가업으로 이어갈 만한 일을 한다는 건 참 멋지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일이 많은 이들에게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테다.

100년을 잇는 서점으로 성장했으면 한다는 필자의 바람에 “꼭 그렇게 해야죠. 저 또한 그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 가장 큰 바람이자 계획입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이는 고지훈 대표를 보며, 우생당을 통해 또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설레는 기분으로 서점 문을 나섰다.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



우생당 서점 내부 모습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고상돈

도로명주소로 들여다 보는 제주 이야기 ㉔ - 고상돈로

글 / 박수진 작가 사진 / 편집부

‘도로명주소로 들여다보는 제주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고상돈로’를 소개한다. 그가 잠들어있는 고상돈로는 지난 2010년 제주도 첫 명예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제주도 한라산의 서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1100도로 구간 중 약 18km 부근(어승생 삼거리 (제주시 해안동)~옛 탐라대 사거리 (서귀포시 하원동))을 ‘고상돈로’라고 부른다.



01



02



03



04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지난 1977년 9월 15일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 제주출신 고(故) 고상돈(1948~1979)이 한 말이다. 그의 정상 등반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국가가 됐다.

고상돈은 제주도 제주시 출신 산악인으로 학창 시절의 대부분은 청주에서 보냈다. 청주상업고등학교(현 청주대성고등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5년 충북산악회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산악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1970년 3월 대한산악연맹 회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1977년 한국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제주도 대표로 참가했다.

원정대의 1차 정상 공격조는 악천후와 산소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을 100m 정도 남겨두고 하산해야 했다. 2차 공격조였던 고상돈은 멤버들과 함께 눈사태, 영하 27도의 추위, 끝이 보이지 않는 벼랑과 능선, 9m 빙벽인 ‘힐러리 침니’ 등을 이겨내며,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지 무려 7시간 20분의 사투 끝에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경, 드디어 한국인 최초로 해발고도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무전을 통해,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라고 했던 당시의 말이 유명하다.

고상돈의 쾌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에베레스트 등정 기념우표와 주택복권, 기념담배 등이 출시되기도 했다.

그의 도전은 에베레스트로 끝나지 않았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2년 후인 1979년 5월 29일. 그는 이일교, 박훈규 대원과 함께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매킨리 등정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산 중 세 사람은 눈사태를 만나고 말았다. 이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고상돈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동행자 이일교는 중태에 빠졌다가 숨졌고, 박훈규는 목숨은 건졌으나 심각한 부상에 시달려야 했다.

산악인의 성지가 된 고상돈로

이후 그의 유해는 한라산 1100고지 정상부에 안장됐고, 기념비와 동상을 세워 그의 산악인으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유족들은 그의 유품을 제주도에 기증,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또한 ‘고상돈기념사업회’가 발족돼 해마다 ‘고상돈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라산 ‘어승생수원지’ 인근 삼거리에서 ‘고상돈공원’이 있는 8,848m 거리의 구간에서 걷기 대회가 열리는데, 이 숫자 8,848m는 에베레스트 정상의 높이를 의미한다.

현재 ‘산악인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고상돈로’에 놓인 기념비에는 ‘대한민국 산악인으로 1977년 9월 15일 최초로 세계의 거봉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여 세계에 제주를 빛낸 장한 아들 고(故) 고상돈 산악인을 기리고자 고향 제주에서 자장 놓은 도로의 일부 구간을 2010년 2월 12일 명예도로로 지정’이라고 적혀 있다. 굳이 산을 즐기는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시간을 내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



- 01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고상돈 산악인 ©민속자연사박물관
- 02 귀국 후 환영식을 받고 있는 고상돈 산악인 ©민속자연사박물관
- 03 한라산 1100고지에 위치한 기념비에서 ‘고상돈 걷기대회’ 식전 행사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
- 04 ‘고상돈 걷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

‘구질막’ 터

우리 땅 최초 ‘한센병’ 환자 진료하던 곳,

도로명주소로 들여다 보는 제주 이야기 ㉞ - 서해안로

글 / 박수진 작가 사진 / 편집부

문둥병, 나병 등으로 불렸던 한센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되었을 만큼 인류 역사상 매우 오래된 감염성 질환의 하나다. 나병균에 의해 전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병의 원인이 되는 나병균의 세균조직을 처음 발견하면서 ‘한센 병’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센병(나병)이라 의심할 만한 기록은 13세기 중반 고려 고종 때 간행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서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표기된 것은 조선에 들어서라고 한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도두동을 지나 이호동을 잇는 해안도로 ‘서해안로’ 인근은 우리 역사 최초로 한센병 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금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곳엔, 과거 병으로 신음하던 환자들을 정성과 애민으로 보살폈던 제주 목사 기건에 얹힌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최초의 한센병 전문치료시설, 구질막

조선 4대 임금인 세종 시절, 기견(奇堅, ?~1460)은 나병이 유행하던 당시 제55대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기견 목사는 관내를 순찰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바위 밑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살펴보니 병으로 마을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가 고통스러움에 울부짖는 소리였다. 이에 기견 목사는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등에 주변의 돌담으로 움막집을 지어 나병환자 전문입원치료시설인 구질막(救疾幕)을 세웠다.

문종실록에 따르면 기견 목사는 환자들에게 ‘고삼’이라는 풀의 뿌리를 달인 고삼원(苦蔘元)을 먹이고, 바닷물에 목욕을 시키는 등 치료에 힘썼다고 한다. 이후 그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나병 치료를 위해 1445년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렸다. 장계 내용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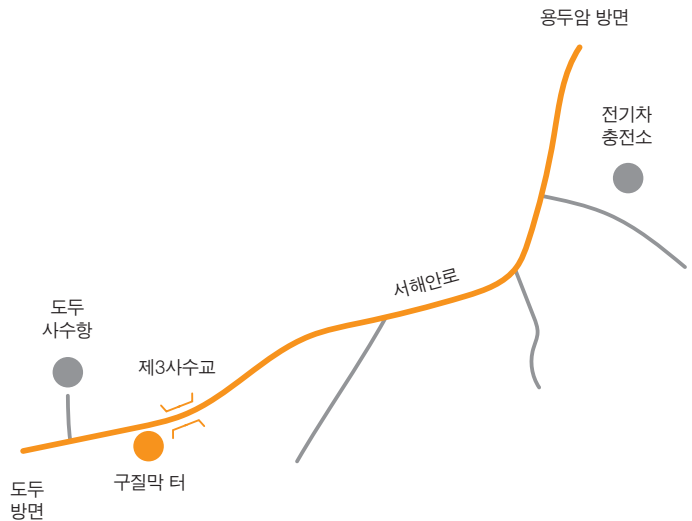
“본주(本州)와 정의·대정에 나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병 환자 69인 중에서 45인이 나았고, 10인은 아직 낫지 않았으며, 14인은 죽었습니다. 세 고을 중 각각 한 사람을 균역을 면제해 의생과 더불어 오로지 치료에 종사하게 하고, 의생도 또한 채용하는 것을 허락해 권장하게 하소서.”

임금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기견은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봐,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됐다고 한다. 그 뒤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자 환자들이 기견 목사를 ‘눈물’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역사적 사료 부족으로 현재는 표지석만

안타깝게도 기견 목사가 제주를 떠난 뒤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고 있는 사료가 없다. 또, 정의현과 대정현에 설치되었다던 구질막의 정확한 위치도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땅 최초로 제주에 나병 환자 전문치료소가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재임했던 신정식 원장은 지난 1986년 제주 한학자인 오문복 선생에게 구질막의 위치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이후 전 세종의원 김순택 원장의 조사에 의해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구질막 터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 서해안로 주변인 제주시 도두2동에는 1998년 12월 세운 ‘奇堅의 救疾幕 터(기견의 구질막 터)’란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



- 01 이 근처의 지명들 대개가 구질막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 02 기견이 구질막을 설치했던 터에 세워진 표석의 모습



'해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

아기해녀 이유정

글·사진 / 편집부



유네스코는 2016년 11월, 제주 해녀 문화(Culture of Jeju Haenyeo)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며 무형유산으로써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작은 부표(테왁)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의 이미지는 제주도민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 <중략> …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호흡을 돕는 장비의 도움 없이 물속에서 머무는 개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하는 자제가 가능하다. … <중략> … 제주 해녀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적고 있다.

제주 해녀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주 해녀’를 정의하는 말이라 하겠다. 고단한 삶이지만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법을 제주 해녀는, 제주인은 오래전부터 터득하고 삶 속에 녹여왔던 것이다.

이런 ‘해녀의 가치’, ‘해녀로서의 삶’이 좋아서 무작정 해녀가 되길 결심했다는 새내기 아기해녀 이유정 씨를 제주시 이호동 해녀탈의실에서 만나 해녀가 된 사연과 함께 앞으로의 당찬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유정 씨는 스스로를 아기해녀라고 소개하며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다고 했다. 보통 각 지역 어촌계에 속한 해녀회 모임에는 각자의 물질 능력에 따라 가장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한 ‘대상군’을 중심으로 ‘상군’, ‘중군’, ‘하군’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고 한다. 그리고 등급마다 물질을 하는 활동지역도 다른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안전한 수심에서 물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중 이제 막 해녀가 된 이유정 씨는 맨 아래 등급 하군이다. 하군을 다른 말로 ‘똥군’ 또는 ‘아기해녀’라고 부른다.



이유정 씨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호 해녀회에서 올해부터 물질을 시작한 서른세 살 아기해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라며 직접 제작한 명함을 건넸다. 신세대 해녀다운 참신함이 느껴졌다.

해녀가 되는 과정이 꽤 길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하셨다면 언제부터 해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셨거죠?

“작년이요. 작년 초, 해녀학교에 입학지원서를 내면서부



티죠. 요즘은 해녀가 되려면 해녀학교에서 최소 3개월, 7주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아야 물질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물질을 시작한다고 정식으로 해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수협이나 어촌계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원한다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최소 2~3년은 거주해야 하고, 지역 해녀회에 속해 있는 분들 모두의 가입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해녀학교를 졸업했지만, 지역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녀가 되길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언제 해녀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언제랄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봐오던 일이라 자연스럽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었죠. 저희 아버지도 어부시고, 주변 ‘삼춘’(제주도에선 동네 어른들을 통상 삼춘이라 부른다)들이 날마다 물질하러 바다에 나가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전 어렸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뿐이죠. 부모님께서도 왜 사서 고생, 험한 일을 하려고 하나며 말리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전 그냥 해녀가 좋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간 정식으로 해녀 일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작년에서야 해녀학교에 입학지원서를 내게 됐어요.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해녀 일을 배우려면 숨을 참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바다가 좋아서 예전부터 취미로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즐기곤 했어요.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마음 맞는 동호인들과 함께 바다정화 활동도 했었고, 지금도 물질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해녀 일을 배울 때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삼춘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고부터는 물이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함께 물질하는 삼춘들도 살펴야 하거든요. 다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물질하다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삼춘들 수를 세는 게 막내인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이호해녀회 최고령 해녀 홍순화 씨(90세)와 함께. 홍순화 해녀는 이제 갓 물질을 시작한 막내 손녀뻘인 이 씨가 마냥 걱정스럽고 애뉠 듯했다.

해산물을 수확하는 데도 시기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생기는 수입은 어느 정도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물질하는 이호 바다는 해산물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아요. 주로 미역과 소라가 주를 이루죠.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바다 날씨만 괜찮으면 물질을 할 수 있는 데, 한 달에 보름을 넘기기 힘들어요. 날씨도 문제지만, 일 자체가 고되고 힘들어 매일같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4월, 5월에 주로 미역을 채취하고 다른 날엔 보통 소라, 보말(바다고둥), 성게 등을 잡아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은 소라 금어기예요. 그땐 소라 산란기라 채취가 금지되어 있어서, 물질을 통한 수입도 거의 없죠. 전 아직 새내기 해녀라 다른 삼춘들에 비하면 수확량도 많질 않아요. 지금을 물질을 배우는 단계니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삼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경험을 쌓고 익혀가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점차 해녀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데 어떤가요? 대를 이어 해녀를 하시거나 해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나요?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희 해녀회에도 60세를 훌쩍 넘기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올해 90세고요. 다른 해녀회에도 제 또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4~50대 삼춘들도 드물어요.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더 이상 물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해녀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제주해녀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고 해녀에 대한 지원정책들도 다양해지면서 해녀가 되려고 지원하는 젊은 해녀 지망생이 예전보다 꽤 많아졌다고 해요. 제가 해녀학교에 있을 때도 많은 분이 해녀가 되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가 되고 싶다고 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대를 이어 해녀 문화를 이어갈 중간 허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참고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해녀 수는 총 3,820명이다. 집계를 시작한 1970년대 14,143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가 줄어 현재는 1/4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연령대로는 70세 이상 해녀가 58.5%, 60~69세가 30.7%로 전체 해녀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49세 이하 젊은 해녀의 수는 채 100명이 안 되는 89명으로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는 되었지만 실제로 제주의 해녀 문화가 대를 거듭해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해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예전보다 해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해녀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이 있다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해녀’ 그 자체가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해녀의 물질은 욕심부리지 않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맞춰 자연과 하나 되기, 서로 경쟁하지 않기,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줄 이가 오직 동료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해 주기. 이 모든 게 항상 함께해야 비로소 해녀의 물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진 직업이고 제가 해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대견스러워요.”

새내기 아기해녀로서 앞으로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대상군이 꿈이죠. 꼭 대상군 해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라면, 진정한 ‘해녀의 가치’를 알리고 대를 이어 해녀문화를 지켜가는 것, 더 많은 분이 함께 해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 그런 일들이요. 해녀협회 회장님이나 해녀학교 원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 댔 아기해녀가 계획만 거창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해녀가 좋아 해녀가 되었고, 해녀의 가치를 알기에 대를 이어 지켜가고 싶다는 아기해녀 이유정 씨. 다부진 다짐만큼이나 그녀의 표정 또한 인터뷰 내내 확신에 차 보였다. 그녀의 꿈과 바람이 초가을 햇살 머금은 물빛처럼 빛나길 바라본다. ☺





우미 훈 사발

글 / 김신자 시인, 제주어보전회 회원

“삼춘, 이거 먹어봅서. 그르헤 어무니가 준 천초 훈 줌 이시 쿠데, 헤양케 물 바레연 나랴으로 우미 멘들아 봤수다. 쿵 7루 훈 숯가락 낱 양념장광 훈디 젓이멍 먹어봅서.” “아이고 어멍아, 이 우민 어디서 나시니게. 삭삭 더운디 흙도 흐옛저게” “아이고, 이젠 우미 멘 들앙 먹는 것도 웃일 거 답수다.” “게난 말이여게. 느네 어 멩도 저영 7딱 오몽을 못흐여노난 어평 말이고게.” 삭삭

더운디 뚝이 발락 나멍 우밀 멘들안 동네 삼춘광 훈디 우미 훈 사발 후룩후룩 먹어가난 물 죽은 밋디 들언 옛날 말 글 으멍 헤 가는 중 몰릅데다게.

우리 동네엔 바당도 널르곡 흐난 아메도 천초가 하영 나난거 닐아양. 벳데영 바당에 뚝 김으레만 가도 천초만 보여노난 난양, 우리어멍 큰큰훈 눈 몰로루 곱전 간 항굽사멍 천출 막 하영 튼언 와났수다. 눈은 하도 커 놓고 양진 죽아노난

눈 소꿉이 물은 흥당하게 들은 복 먹으명도 천초 듣는 맛에
 하루 해가 가는 중 몰랐주마썸. 혼 줌 뒤 줌 모다지민 뉘나
 마나 우리어명 천초호영 온 것에 부쩍 혼디 넣어놔수다.
 어명은 경 혼 모십을 받 막 코삿호여 나십주기. “아이고,
 나 똥 서툰바치 줌네라도 혼 놔역 호염신게. 야인 줌네 시기민
 잘 호켜게.” 호명 웃주와간다 웃주와온다 호여가민 난 바
 당에 갈 적마다 보멸 잡는 것 보담 돈이 뉘는 천초를 느랑
 톨안 와 나십주. 천초 해경홀 적인 웃카름

정애어명은 젊고 바당물건 잘 호는 상군이난 열 구부릴 호
 당도 버쳐 나십주. 겐디, 우리 어명은 나든 할망이라노난
 다솥, 오솥 구부릴 백이 못 호여놔주마썸. 요샌 혼 구부리에
 삼십 키로씩 담았주마는 전인 오십 키로씩 꺾꺾 누르뜨명
 담아노난 녀이 베연 들르들 못헤노난 삼십 키로씩 줄엿젠
 홉데다. 어촌계에서 천초 받으레 앞쟁호민 나광 어명은 바
 삭 물론 천출 베르싸가명 하간 머홀광 몬지레기가 신가 웃
 인가 호명 7쿨호게 다듬아놔수다. 경혼 지명에 풀당 호쥬
 곱정 놔둔건 삭삭 더운 으름날에 톱 우밀 멘들안 먹어나십주.
 어무니가 수돗가에서 메날 우밀 막게로 탁탁 두디리명 물
 적신 후제 장항 뒤틀 넣어놔수다. 뱃 볼른디 넣영 놔두민
 별정호엿던 우미가 점점이라가민 츄츄 노리롱호여가당 낭
 중엔 해양게 바래어져양. 게민 머홀광 몬지레길 7쿨호게
 다듬양 씻친 후제 물에 쟁 놔둬네다. 반나절 쟁 놔두민 우
 미가 막 불어양. 게민 솟안이 들이청 팔팔 팔리는 거라양.
 우금으로 들구 젓어주명 어느 정도 마직호게 쫄아들민
 체에 곱게 걸러내영 식으민 톨랑톨랑혼 우미가 뉘주마썸.
 요샌 우미가 무랑호게 술친 사름덜신디 잘도 시세나는 음
 식이렌 호엿수다. 저칼로리 식품이렌 호명 식이섬유도 풍
 부호고 늘어가는 것도 호쥬 막아주곡 벤비에도 막 좋덴호
 난 비타민광 미네랄이영 칼륨이영 몸에 존거 몬 들은 이서
 노난 막 고급진 음식이 뉘엿수다게.

나 두린 때 우리어명광 오일장에 갓단 우미 혼 사발을 먹은
 기억이 싯수다. 그 때도 우미가 막 시세나난산지 우미 장시가
 막 바빠난 거 다향. 고망 듕상듕상혼 체에 우미 호나 올
 려놔 손바닥으로 짹 눌뜨민 우미가 칼로 썬 것 보담 곱고 니
 귀반득호게 썰어져 나오는 모십이 경 신기홀 수가 웃엿수다.
 우미 장시가 녀이 제여노난 화륙화륙호명 열 그릇도 멘들

아부는 모십이 경 주미젓주마썸. 큰큰혼 낭퐁이에 콩7루광
 양념장을 버무령 주민 잘도 맛 좋게 먹어나서양. 나가 국민
 학교 일혹 년 때 고산 오일장에 뜨라갓단 어명이 사 준 우미
 혼 사발의 맛은 녀이 기가 맥현 이주볼 수가 웃어양. 오백
 원을 주냥호젠 이녁은 안 먹고 나만 아웃아웃 썸창아리웃이
 먹어가도 우리어명은 이녁 제비생이 입에 들어가는 게 경
 좋은 생인고라 촌촌이 먹으라호명 입바울 댕아쥬난 기억이
 좇좇이 납니다게.

“삼춘, 삼춘은 9명호연 물질을 배웁데과?” “나가 아느냐게.
 열 니술 때부터 어명조름에 혼디 바당에 가놔주게. 힘
 베우레 속곳 입영 테와 들르곡 호영 우두레기 산 이시난 어
 무니가 물러레 자락 건밀런게마는 죽지 안호쟁 바들랑바
 들랑 테와 쥬영 히당보난 나도 몰르게 배와젓주. 줌네가 뉘
 고정호연 뉘 사름이 뻗이나 시커니? 난 원 물도 모쥼고 저
 슬엔 잘도 물이 얼어노난 죽어도 줌넌 안호켄 호엿주기. 게도
 우리어명은 물질을 잘 해사 세월나게 시집도 해벤가이서 메
 누리 해간덴 호명 들구 시켜노난 9명9명 호게 뉘엿주기.
 나 나이 댕 그자 해만 뜨민 뱃터레 바당터레 터정 돌으명
 일호가 바빠노난 호교는 제라호게 가 져서게. 일년에 받은
 쥬호영 강 보민 벅덜은 몬 배와부난 나만 그자 편편이랏주기.
 게난 공뉘 제라호게 호여져시커냐. 게도 우리어명이 7르차
 준 줌네호난 썸싱 직장을 7전 영 살았주기.” “호기사 우리
 큰 성님도 큰똥이곡 호난 애기도 봐살거 일도 호여살거 메날
 애기업게로 고생호는디, 셋 성님을 아부지가 호교레 디물
 러노난 우리 큰 성님이 베설이 바락 난 보시 그릇을 와썸
 마당터레 데쥬 벌러불엿젠 홉디다게. 이녁은 호교 가지말양
 뱃디만 글렌호난 부에난 경 혼 생이라양. 경호연 큰 성님
 은 야간 호엿젠 홉디다. 경해도 한글은 막 잘 알안 테뻤이
 가 원체 좋아노난 나 들은 운전뉘헐시뉘 봐신디도 뉘번에
 부뜨곡양. 운전 7르차주는 선싱이 막 놀레젓주마썸.” 가
 근혼 삼춘광 건불리명 이 말 저 말 호단보난 우미 혼 사발은
 몬 비우고, 또시 굴루이 뉘 먹을 거 웃인가 냉장고 문을 올
 아졌수다게. ☺

유년시절 상상의 이미지를 투영해놓은 심해어인
'환상어 Phantom Fish'라는 작품이다. 세계유산축전
용암동굴계 전시공간에 설치되었다.
©김기대



폐품[廢品]을 미품[美品]으로 만드는 예술가, 김기대

글 · 사진 / 편집부



제주 해안가 바위틈에서 쓰레기를 캐고 있는 예술가가 있다. 요리를 위한 식재료로 보말이나 조개를 캐듯, 화방에 미술재료를 구입하러 가듯이 그는 이렇게 작업실 밖으로 나와 제주 곳곳에 버려진 폐품을 줍는다.

버려지고 수명이 다 된 폐자원을 수집하여 생명을 불어넣을 리사이클링(Re-cycling)을 준비한다. 다채롭게 수집된 폐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모시키기도 하고, 생활에 유용한 쓰임새로 새로운 실용성을 불어넣는 그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환경 예술가다.

폐품[廢品]에 본인의 노동의 품을 팔아 미품[美品]을 만드는 정직한 미술가다.

습한 제주날씨를 ‘촉촉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는 제주를 나타내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 ‘환상의 섬’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이 섬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링겔’('링거Ringer'의 한국식 발음)이라는 이름을 작업실에 걸어놓았다. 지역사회를 위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 표현하는 친환경 미술수업에 서부터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하여 이루는 공공미술 작업



김기대 작가

참여까지, 그는 다양한 예술 작업들을 환상적으로 이 제주 섬에서 해오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처럼 회화, 건축과 조각의 등에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는 그는 호기심 많은 조각가이고, 건축가이고 어린이들과 함께 교감하는 교육자이다. 따개비가 붙은 부표를 보며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단편 소설, ‘어린왕자’의 화산 셋과 장미가 살고 있는 소행성(B612)이라고 생각하는 몽상가이기도 하다. 버려진 부표 안에 오랫동안 서식하며 살고 있는 산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 긴 세월 버려진 폐기된 시간마저도 상상의 시간으로 다시 예술가인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재생시켜놓는다. 표류된 부표는 바다 생명체의 소중한 집이 되고, 그 집은 이야기가 되고,

다시 그의 작품 안에 언어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먼저 그전에, 우리가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태어나신 곳은 제주가 아니지만 제주로 오시게 된 이유, 어떤 점이 작가님을 제주로 이끌었나요?

이전 일하던 회사에서 제주 본태 미술관 시공을 맡게 되었어요. 건축의 결과보다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공 과정을 직접 보려고 개인 휴가까지 내면서 제주에 자주 오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면서 제주를 느끼고 제주의 자연에 매료되었어요. 제주는 자연이 압축된 곳 같아요. 환경 자체 습하고 축축하고, 육지보다는 덜 춥고, 초록한 생물이 사계절 살아있는 자연이 좋았어요. 저는 육지에 추운 겨울이 너무 힘들거든요. 모든 것이 추위에 말라서 소멸되는 것이 싫어요. 제주도는 그 소멸의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제주는 저의 마음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인 제2의 고향이지요.

제주에 이주한 후에 했던 대표적 작업들과 작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중섭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조천읍 와산리 일대 굴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 '노란대문창고'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해안 전역에 떠밀려온

부표를 모아 만든 6m 높이의 조랑말 조형물이 가시리에 설치되었던 적이 있었고, 선홍분교에 있는 친환경 나무 벤치인 '선홍섬광', 바다폐품으로 만든 '2014년 평화축제'의 무대, 종달리에 있는 '해녀의 부업'에 설치된 상들리에도 작업을 했지요.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공공 미술작품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문화공간 '새탕라움'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스페이스 오브 제로 space of zero>라는 개인 전도 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지요?

선홍분교에 있는 나무 벤치인 '선홍섬광'입니다. 커다란 후박나무 아래 제주의 바람과 오름과 파도가 담고 있는 유영하는 곡선의 이미지를 함축해서 제주 섬모양의 벤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360장의 나무를 일일이 하루에 2장씩, 다른 모양의 높이로 깎고 다듬어서 한 장 한 장 붙이는 노동을 한 작품입니다. 봄에 시작해서 늦은 가을까지 거의 반년 동안 학교에서 애들이랑 함께 급식 먹으면서 허리 조아리면서 오랫동안 공들인 작품이지요.

작품에 사용 되고 있는 폐품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였나요?

서울대 조소과에서 공부를 할 때, 재료의 한계성과 비용의 문제로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을 구하며 다녔어요. 그게 쓰레기든, 뭐든 경제적으로 썩 넉넉하지 않았던 학



- 01 환상의 섬 제주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이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작업실 이름 또한 영양제 주사를 이르는 '링겔(RINGEL)'이라고 지었다.
02 부표를 활용한 조랑말 조형작품. 가시리 조랑말박물관에 설치되었다.
©김기대





선홍분교에 설치한 김기대 작가의 '선흙섬'은 영화 '별리섬' 포스터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김기대

생인 저에게는 고마운 작품의 재료인 거죠. 처음에 제주에 내려올 때쯤에 환경과 몸을 생각해서 채식을 시작했어요. 여유 있는 시간에 제주의 자연에 널 부려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 폐품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쌓아둔 바다 폐품들을 보며 동네 어르신들이 바다에 떠도는 물건에는 귀신이 붙었다고 주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 착한 일을 했다고 도장 찍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요.

폐품이 작품에 재료로서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 물건을 사용했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과 날씨에 따라 훼손된 정도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저마다 다 다르지요.

폐품을 리사이클을 할 때와 폐가를 리모델링할 때에 그것을 작업하는 본인의 고유한 접근 방식 무엇인가요?

계속 관찰하고 계속 기다려보고 더 경청하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물리적 공간 변화에 따르는 사라진 것에 대한 고려를 머리 한편에 넣어두고 실현시켜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뚫으며 늦은 보폭의 속도로 천천히 결과물에 다가갑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가 있다면요?

요즘 새롭게 3D 프린터로 페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제품들을 보면서, 생활 폐기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영구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이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술가의 영역에서 공학의 영역

으로도 확장되어가고 있거든요. 제주 해안에 떠도는 해초를 보면서, 들판에 등성등성한 말뚝을 보면서도 재활용의 방안을 끊임없이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시나요?

‘2020 세계유산축전’에 하나인 <불의 기억-자연, 인간, 생명의 길>이라는 전시에 선보일 작품을 막 완성했어요. 거문오름에서 용암 동굴계의 흐름을 따라 불이 흘러갔던 바다 입구까지 걷는 전시공간에 설치될 작품입니다. 어릴 때 물웅덩이에서 유명하던 투명한 작은 풍년새우를 보고, 외계 우주생명체라고 상상했었어요. 그 유년시절 상상의 이미지를 투영해놓은 심해어인 ‘환상어 Phantom Fish’ 작품은 바람결에 따라 물고기 비늘의 빛깔이 각각 다르게 물결치며 반짝일 거예요. 지금은 서귀포 한 초등학교에 설치될 장수풍뎅이 모양을 지닌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한창 기획하고 있어요.

공공미술가, 건축가, 조각가, 환경예술가 등 많은 호칭들로 불리는데, 그중 어떤 호칭을 이름 앞에 두고 싶어요?

조각가요! 단순한 한 면만을 품고 있는 그림보다 다각적으로 그 모습을 노출시키는 솔직한 면을 지니고 있는 조각이 좋아요. 군대 제대 후 조소과로 전공을 바꾸게 했던 저를 매료시켰던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의 사진에는 아치형의 웅장한 공간과 다비드상과 그것을 보는 관람객이 있었어요. 사람, 공간, 조각이 조화롭게 있는 공간을 늘 생각해요. 자연과 사람에게 이로운 예술 활동을 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다양하게 해나갈 겁니다. 🍷

나는야! 등이 푸른 자유라네! 각제기

글·사진 / 편집부



“한때 넉넉한 바다를 익명으로 떠돌 적에
아직 그것은 등이 푸른 자유였다.
고등어, 참치, 청어, 정어리, 꽁치 그런 이름을 달고부터
그물에 얹히고 몇 두릅씩 묶여 생선은
도마에 오른다.”

정종목 시인의 '어머니의 달' 시집에 수록된 '생선'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 시에서 고등어로 시작하는 등 푸른 생선이름의 나열의 끝에 꽁치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라는 말줄임표에는 분명히 각제기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제기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와 함께 대표적인 4대 등 푸른 생선의 하나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의 영문명도 ‘말 고등어’란 뜻인 ‘horse mackerel’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빛에 푸르른 암청색 등을 갖고 있고, 바다 밑으로 올라다보면 파도의 포말 같은 은백색의 기름진 배를 갖고 있는 각제기는 함께 무리를 지어 연안의 중층과 저층에서 유영 생활을 한다. 한반도 전 연안과 동중국해·남중국해·대만·중국·일본 등 온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널리 잡힌다. 방어, 부시리와 함께 농어목 전갱잇과에 속하는 각제기는 어릴 때는 요각류, 젓새우류 등 소형 플랑크톤을 먹다가 자라면서 젓새우, 소형새우 등 대형 플랑크톤 외에 작은 어류, 오징어류 등도 잡아먹는다. 산란은 4~7월에, 산란 수온은 15~26℃로 고등어보다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류이다. 각제기는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방추형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등어에 나타나는 특유의 줄무늬가 없으며, 고등어보다 납작하고 청어보다는 통통하다. 아가미뚜껑에 적힌 선명한 검은 반점이 특징이고 꼬리지느러미 부근에는 ‘모비늘’이라 불리는 딱딱한 비늘이 일렬로 발달되어 있다. 마치 멀리서 보면 황금색 실로 봉합수술을 받은 듯 선명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체는 학술적 명칭인 ‘방패비늘’에 맞게 날카롭고 딱딱하고 억세다. 식용할 수 없는 부위이므로 조리 시에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각제기를 잡아 식용으로 즐긴 흔적을 기록으로 발견할 수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玆山魚譜」에는 각제기를 가짜 고등어라 했으며, 맛이 짙어 고등어보다 좋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작성된 「우해이어보 牛海異魚譜」에는 ‘미갈’이란 말이 등장한다. “빛깔은 담황색이고 맛은 산뜻하며 좋다. 본토박이들은 매갈 梅渴이라고 하는데, 매년 고성 어촌의 여자가 작은 배에 젓갈을 싣고 와서 판매한다”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갈이란 생선은 꽤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식용한 생선이었고, 특히 어린 매갈은 젓갈로 즐겨 먹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몸길이 5cm 내외의 어린 생선은 대개 염장해 젓갈 재료로 사용한다. 여기서 매갈은 오늘날 경상도 지역에서 전갱이를 일컫는 사투리인 ‘메가리’로 통용되었고, 「우해이어보」에는 ‘매가리’라는 말로 기록했다.

너의 이름은 뭐니? ‘각제기’? 아니면 ‘각재기’?

‘각제기’는 전갱이를 뜻하는 제주 사투리인 제주어이다. 세계의 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각제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 해역 골고루 서식하고 있는 탓에 전국 각지의 다양한 방언의 이름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는 ‘메가리’로, 경남에서는 ‘전광어’로, 완도에서는 ‘가라지’로, 전남에서는 ‘매생이’로, 전남에서는 ‘빈생이’로 불리며 그 지역에 맞는 각각의 다채로운 요리로 만들어진다. 간혹, 경상도 일부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전갱이를 ‘아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전갱이의 일본명인 너무 맛있다는 ‘맛’을 의미하는 ‘아지 鰺, アジ’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하다. 재미있게도 이곳 제주에서는, 무성 과일음인 ‘ㄱ’을 첫 글자와 끝 글자에 갖고 있는 ‘각제기’라는 단어를 공기

각제기는 사계절 내내 제주의 바다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낚시로 낚을 수 있다.



중으로 투박하게 발음을 내뱉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용어가 글로 또박또박 표기가 될 때는 가운데 글자인 ‘제’와 ‘재’가 서로 앞 다투며 머릿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제주도 식당을 다니다 보면, ‘각제기국’이라는 음식명이 새겨진 메뉴판도 그렇고, ‘각제기’라는 단어를 구글 검색창에 치면, ‘이것을 찾으셨나요? 각제기’라고 제일 상단에 뜨는 질문도 마치 ‘각제기’가 틀린 표기라고 가르치는 듯하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제주도에서 2009년 12월 개정·증보판으로 발행한 ‘제주어사전’을 보면, ‘각제기’가 아니라 ‘각제기’가 제주어 표준말로 등재되어 있다. 전쟁 이를 가리키는 제주어 표준말은 명백히 ‘각제기’가 올바른 표현이다.

각쟁이도 맛있다고 인정하는 영양 듬뿍 각제기

각제기는 담백하면서 쫄깃한 감칠맛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고등어에 비해 생선 비린내가 거의 없다. 보통의 생선은 산란 직전에 먹어야 제맛이지만 각제기는 예외다. 연중 먹을 수 있는 고마운 생선이지만 알을 낳은 뒤, 7월부터 속살에 기름기가 오르기 시작해 바닷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9월이 되면 특유의 단맛이 절정을 이루며 생선 비린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각제기는 등 푸른 생선의 선두답게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인 칼슘(100g당 74mg)과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을 다량으로 갖고 있다. 오메가-3에 담겨있는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중성지방과 혈액 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DHA는 기억·학습능력을 높이며 치매 예방을 돕는다.

각제기는 무엇보다도 등푸른 생선들 중에 전염병 예방에도 좋고 정신적(두뇌)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100g당 0.14mg)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고등어가 성장기 어린이 건강 지킴이라면, 고등어보다 열량이 낮은 각제기는 성인 건강 지킴이라고 믿고 즐겨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9월의

어식백세(魚食百歲) 웰빙 수산물로 오징어와 함께 각제기를 선정하였다.

온전히 제주사람의 몫이 되어준 생선

각제기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방언 이름을 갖고 있는 만큼이나, 그 지역 환경과 향토적 특성에 따라 국, 소금구이, 조림, 튀김, 건어물, 식혜, 젓갈, 초밥 등 가지각색의 다양한 요리로 애용되고 있다.

운송 및 냉동 보관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육지와 바다 가운데를 두고 멀리 떨어진 제주 섬에서는 각제기는 다른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른 탓에 맛과 선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진상품목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진상품으로 고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난 제주사람들의 온전한 몫이 되어준 각제기는 그들의 허기진 배속을 맛있게 채워주었을 것이다. 각제기를 소금에 절여 구워도 먹고, 무를 자박하게 넣어 조림도 해서 즐겨 먹지만,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각제기국’이다. 양념을 거의 넣지 않는 원재료인 각제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려 어린 배추잎과 함께 뚝배기에 넣고 한차례 소복이 끓여 낸 맑은 국물맛은 속이 확 풀릴 정도로 시원하고 고소하다. 간혹 국물의 구수한 맛을 더하기 위해 된장을 넣기도 한다.

이 명확하고 쉬운 간단 요리법을 따라 오늘 저녁 한번 각제기국을 요리해 즐겨보자. 요리시간은 오직 5분 정도, 3분 컵라면 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2분을 더 투자하면 된다. ☺



제대로 즐기는 각제기국

각제기국 만들기

재료: 장만된 신선한 각제기, 어린 배춧잎, 굵은소금, 다진 마늘과 풋고추(요리 후 간 맞추기)



1. 꼬리 부분에 방패비늘을 제거하고 내장과머리가 손질된 신선한 각제기를 준비한다.



2. 각제기 몸통 부분에 살짝 칼집을 만들어 준다.



3. 따로 냄비에 찬물을 담고 거기에 각제기를 통째로 담고 끓인다.
(혹시 모르는 비린내를 미리 끓여서 없애는 과정이다.)



4. 동시에 뚝배기에 찬물을 담고 어린 배춧잎을 듬성듬성 먹기 좋게 손으로 끊어 담아서 강한 불에 끓인다.



5. 굵은소금을 선호하는 염도에 맞게 넣어 국물에 간을 한다.



6. 한번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기호에 맞게 준비한 다진 마늘과 풋고추를 넣어 개운한 맛을 느끼며 맛있게 먹는다.



서귀포에서 ‘나비박사’ 석주명을 추억한다

글 / 강시영 제주환경문화원장 사진 / 강경민 작가



#옛 제주시험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낭보

-1936년 나비채집 제주와 첫 인연

-1943년부터 2년 1개월간 제주 체류

-제주도총서 6권 남겨 제주학연구 초석

지난 6월 말 서귀포에는 매우 기념할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문화재청이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지정했다는 뉴스다.

나비박사이자 제주학 선구자로 추앙받는 석주명 선생이 1940년대 2년여간 머물며 연구에 몰두했던 공간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석주명이 활동했던 역사적 공간이자 제주학의 연구기반을 다지게 했던 장소로서 빛나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 평가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 장소는 훗날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최근에는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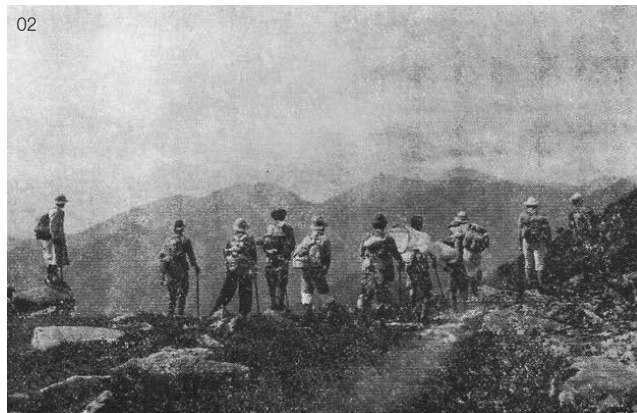
제주 언론에는 비교적 짧은 뉴스로 소개돼 아쉬움이 컸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서귀포시민을 포함한 많은 제주도민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

같다.

이 공간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상징성이 매우 큰 데다 후속사업에 대한 명분과 청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주명 기념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가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석주명과 서귀포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켜 석주명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화재청이 공식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인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은 약초를 재배,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 당시 작성된 ‘경성제국대학부속 생약연구소시험장배치도’를 통해서 건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치에 표현한 마감재의 디테일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진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이 근무(1943년~1945년)했던 곳으로서 지역사(인물)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01 1942년, 평양에서 임원면(林原面) 산장으로 가는 길에 여동생 석주선과 함께.
난사 석주선 선생은 평생을 바쳐 한복 연구에 매진한 선구적인 한복 연구가이다.
사진출처 「난사 석주선 박사 추모사진집」 1998. 5. 2

02 함경북도 도정산(渡正山, 2201m)에서 나비채집여행 중 조수 장재순과
함께 포충망을 들고 있는 모습. 1940년 7월.

이 문화재는 정확한 건축 연도는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지만 1930년에서 석주명 선생이 부임한 1943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석주명은 이곳에서 근무하며 나비와 곤충은 물론 제주도 방언 등을 연구하며 ‘제주학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08년 11월 우리나라 나비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을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석주명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나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생물학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20여 년의 연구생활 동안 나비분류학 분야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산 나비에 대해 외국 학자들이 잘못 붙인 동종이명 800여 개를 정리했다.

평양이 고향인 석주명은 제주인보다도 제주를 아끼고, 초인적으로 제주를 탐구했던 인물이다. 나비연구에 일생을 바친 석주명이 제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28세

이던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주명은 이때 제주도산 나비류를 채집해 제주도산 나비류 58종을 학계에 보고했다. 그가 34세이던 1942년에 경성제국대학 미생물학과 교실 소속인 개성의 생약연구소에 촉탁으로 들어갔다가 이듬해에 신설된 서귀포시 토평의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으로 자청해 제주에 부임한 것은 1943년 4월의 일이다.

이후 1945년 5월 제주를 떠나기 전까지 2년 1개월 동안 제주에 머물며 나비연구와 함께 제주학의 토대를 닦은 명저를 남겼다. 6권의 제주도 총서로 묶여 1947년부터 출판하기 시작했다. 제주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석주명 선생을 가리켜 진정한 ‘제주도학의 창시자’라고 칭송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연구의 거점이 훗날 제주대 아열대농업연구소인 것이다. 제주에서의 석주명 기념사업이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일례로 제주어에 대한 석주명의 관심이 흥미롭다. 석주

명은 우리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각 지역을 다니며 채집을 하는 동안 지방마다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 방언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결과다. 이러한 흥미가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까지 제주도의 방언을 조사·연구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가 발품을 팔아 남긴 ‘제주도 방언집’은 국어학계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양상을 띠는 방언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민속, 흥미로운 향토사도 그의 관심사였다. 제주도 관계문헌집, 제주도 수필, 제주도 자료집, 제주도 생명조사서의 역작들도 이런 관심의 산물이었다. 석주명의 이런 관심은 당대 내로라하는 국학자들과 학문적으로 교우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민속학자 현용준(2016년 작고, 전 제주대 명예교수)은 생전 석주명 강연에서 “석주명 선생은 흔히 ‘나비박사’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濟州島)의 문화연구에 공헌한 바 크다.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나로서는 석주명 선생을 제주도 방언과 민속을 처음으로 문화인류학적 견지에서 연구를 창시한 학자라고 본다”고 했다.

최낙진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는 ‘석주명의 제주도 총서의 출판학적 의미’에 대한 글에서 “석주명의 총서 기획과 출판은 우리나라 출판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에 의해 특정 지역을 자연, 인문, 사회, 과학, 역사 부문 등을 망라한 총서 기획과 출판이 석주명 이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석주명의 제주도 총서 기획은 그 자체로 특이하고 경이로운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석주명 선생은 학계는 물론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도 회고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선생의 학문관과 연구방법,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고 계승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석주명 선생이

남긴 제주총서 등 제주학을 제주대학교 교양학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문화재위원들과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즐기게 석주명이 서귀포에 머물면서 연구에 몰두했던 공간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앞으로 활용까지 염두에 둔 기념관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열대농업연구소를 아예 ‘석주명공원’으로 명명해, 서귀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제주대 김태일 교수(건축학부)는 석주명의 활동 기반이었던 아열대농업연구소의 보존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는 석주명 선생이 활동했던 주요 공간이자 제주학의 연구기반을 다지게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열대연구소의 건축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성을 갖는 것이며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제시대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건축물로서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입면양식이며 정돈된 형태의 큰 창, 부분적 장식창, 온실이 당시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석주명의 활동장소와 연구활동 거점으로서의 가치에 더욱 주목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전경

그는 단순한 보존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기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가 김석윤도 제주도문화재위원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 구조물의 문화재적 가치는 건축양식이나 형태 뿐만 아니라 장소, 역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제주도문화재 위원들은 아열대농업연구소를 석주명공원으로, 인근 도로를 ‘석주명로’로 명명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학계에서는 세계적 나비학자였던 석주명의 연구 거점인 서귀포시 일대를 세계적인 나비축제의 공간으로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성공신화를 일군 함평 나비축제를 거론하면서 나온 탄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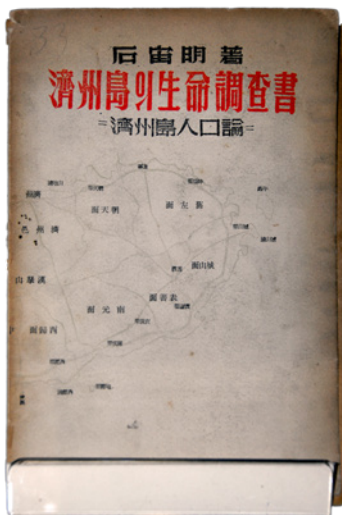
#제주학 연구에 초석을 놓다

석주명의 제주도 총서

1947년 제주도방언집 첫 출간

제주학총서 6권 잇따라 선보여

제주를 떠난 그는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제주도학의 선구적 의미를 갖는 제주도총서를 잇달아 발표한다. 1947년 ‘제주도방언집’을 그 첫 작품으로 출간했고 1949년에는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제주도관계문헌집’을 펴냈다. 나머지 원고는 동생이 보관했다가 ‘제주도수필’(1968), ‘제주도 곤충상’(1970), ‘제주도 자료집’(1971)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



1944년 2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석주명이 인구조사에 관해 정리하여 편찬한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

석주명 선생이 남긴 ‘제주도총서’ 6권은 제주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귀중한 문헌자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제주의 재발견이며, 제주의 문화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빛나는 업적으로 제주인과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 총서’ 6권은 2008년 12월 새롭게 발간됐다. 석주명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터를 잡았던 서귀포문화원이 엮어낸 것이다.

‘제주도 방언집’은 석주명 자신이 직접 제주에 거주하면서 조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주의 남부방언과 북부방언을 비교했다. 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등 각도의 방언과 비교했으며 몽골어, 일본어, 중국 한족어, 말레이시아어, 필리핀어, 안남어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와 비교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1944년 2월부터 1945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9개 면 16개 리의 인구를 조사한 자료다. ‘제주도 문헌집’은 기존에 나온 제주도에 관한 단행본, 논문 등을 수집하여 서명, 편저자, 권 수 및 발행사, 발행연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 수필’은 짙막짙막한 기록들로 되어 있지만, 제주도의 역사, 지리, 인문, 민속 등 많은 건문을 들을 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크게 총론, 자연, 인문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대 최낙진 교수는 “제주도 수필은 가히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에 관한 수필식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곤충상’은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6권 중 유일하게 자신의 전공분야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마지막에 발간된 ‘제주도자료집’은 1~5권에 들어가지 않은 기고 등 여러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석주명의 회고록

제주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수집

해방후 3년간 매년 신문자료 정리

1949년에도 추자도서 채집 기록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은 석주선이 1992년 그의 오빠인 석주명의 이름으로 낸 마지막 유고집이다.

“6·25 동란으로 1·4후퇴시(…)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오빠의 원고가 진눈깨비에 젖는 것이 안타까워 코트를 벗어 배낭을 덮어씌우고 뱃전에서 오들오들 떨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던 누이동생 석주선이 오빠의 유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펴낸 단편들이 이 회고록에 담겨 있다.

회고록은 석주명이 생전 신문지상이나 학회지에 발표한 단편과 미발표된 단편들을 모아 합본으로 나왔다. 이 마지막 유고집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구석구석 제주에 대한 무한애정과 관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라산이자 제주도이요, 제주도이자 한라산이다. 해상에 약 2,000m나 되는 산이 높이 솟아 있으니 산으로 볼 때에는 한라산이라고 하고 섬으로 볼 때에는 제주도라고 하게 된다.”(한라산의 나비)

그는 이 유고집에서 제주도의 나비류와 제주도의 여다현상, 제주도 방언과 비도어, 제주도 방언과 마래어, 탐라고사, 토산당 유래기,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제주도에 대한 단편들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 살린 비도어(比島語)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언어이며, 마래어(馬來語)는 남양 전체의 민족이 널리 사용하는 공통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주도 방언과 이들 외국의 언어까지 비교 연구한 것이다.

석주명은 제주를 떠난 뒤 맞은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낸다. ‘신문기사로 본 해방 후 1년간의 제주도’ 글머리에 “나는 제주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제주도에 관한 것이면 수집정리하는 것이 나의 연구테마의 하나이다. 그러니 나에게서는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정리가 된 것 안된 것이 많이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해방후 3년간 1년 단위로 중앙의 유력 신문에

실린 제주도 관련 기사를 꼼꼼히 정리해 나간다. 행정, 문화·교육·종교, 식량·산업, 운수, 후생, 시찰, 한라산은 물론 심지어 광고에 실린 내용까지 추출하고 분류해 정리했다. 당시 제주도관련기사의 유형별 통계치였다.

석주명은 이 회고록의 ‘추자도의 나비’ 편에서는 1949년 8월, 추자도에 상륙해 채집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불의의 피습으로 숨진 1950년 10월 6일보다 불과 1년여 전의 답사 일정으로, 한국산악회의 제6회 학술조사대원으로 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이 때 상·하추자도와 횡간도에서 채집활동을 벌였으며 “여태까지 제주도(濟州島)에서만 알려졌든 ‘제주꼬마팔랑’이 횡간도에서 잡힌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의 아버지(석윤희)

아버지는 매년 이른 봄이면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봄과 여름이 다 지나도록 산에 머물곤 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는 층층이 물집으로 뒤덮인 발바닥을 치료하러 올 때뿐이었다.

며칠 쉬고 회복되면, 아버지는 다시 나비를 채집하러 나가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은 ‘인도 까마귀’, ‘석도깨비’였다. 그는 자유인이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활방식을 유지했다.

아버지는 제주도 지역 방언과 인구조사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는 모든 시골과 도시 주변을 살살이 조사하곤 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직장 전근 때문에 초등학교를 여섯 군데나 옮겨 다녔다.

내가 일곱, 여덟 살쯤 되던 해에 아버지가 경성대학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어 제주도로 이사 오게 되었다. 우리는 제주시험장 건물 건너편 주택에서 살았다. 그 당시 우리 집 주변엔 집도 건물도 없었고 황량한 벌판만 펼쳐져 있었다.

#석주명기념관, 공원...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오성찬의 실명소설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석주명 기념사업 기폭제 서귀포문화사업회 주도
토팅동 제주시험장 국가문화재 등록 계기로
석주명기념관, 나비생태공원, 축제 등 공론화 계기

나비박사이자 제주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석주명을 기억할 때, 특히 제주에서의 기념사업에 불을 댕긴 주역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인물과 민간단체가 있다. 서귀포 출신 작가 오성찬(1940~2012)과 서귀포문화사업회(회장 이석창)다.

오성찬은 2004년 석주명의 생애와 제주에서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 장편소설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를 펴낸다. 2002년부터 국내 모 계간지에 연재된 것을 묶은 것이다. 작가는 앞서 추사 김정희의 삶을 그린 ‘세한도’, 피난시절 서귀포에 머물렀던 이중섭을 모델로 한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작품도 석주명의 생애를 다룬 실명소설이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 말미에는 2002년 6월 서귀포시청에서 열렸던 ‘제주학의 선구자 나비박사 석주명’ 주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기조연설 내용을 전재했다. 석주명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작가노트와 같은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세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이 글에서 작가는 짧은 기간 제주를 다녀갔던 석주명이 여섯 권의 제주도 연구 자료를 남긴 것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냈다. 제주에 있는 동안 유채와 겨자씨앗을 들여와 시험재배한 것이 제주의 봄을 유채꽃으로 뒤덮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덧붙여놓았다.

소설은 단순히 그의 업적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그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휴머니즘 가득한 인간애에 더욱 주목한다. 소설은 석주명이 부산항에서 연락선을 타고 제주항에 닿은 후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가는 여정으로 시작한다. 서귀포 토팅마을에 있는 경성제대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으로 향하며 제주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해 전쟁통에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끝부분이 소설의 제목이 된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이다. 소설에는 제주의 말, 전설, 민요, 한라산 등 섬과 섬사람들의 독특함에 매료된 ‘나비박사’의 여정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

작가는 “이 작은 책을 역사의 혼란기에 혼신의 정열로 살다 간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영전에 바친다”고 했다. 이 소설은 2010년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가 선정한 ‘제1회 서귀포 시민의 책’에 뽑혔다.

소설은 석주명기념사업의 기폭제가 됐다. 서귀포문화사업회는 소설이 나온 2004년 4월 10일 석주명이 머물면서 연구에 몰두했던 토팅동 제주대 아열대농업생과학연구소에서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그의 사후 최근에는 서귀포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故) 오성찬 작가 추모 기념사업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귀포문화사업회는 1997년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서귀포시를 사랑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자연환경과 문화복원사업을 위해 태동한 민간단체. 올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서귀포문화사업회는 그해 10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서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나비와 제주학 연구에 큰 업적을 쌓은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귀포문화사업회 주



2003년에 건립된 석주명 기념비 제막식 모습

도로 2006년 전국단위 석주명기념사업회 발기인 대회가 열리고 이듬해 3월 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2008년 석주명 선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때였다. 공동위원장에 이석창 서귀포문화사업회 회장, 남상호 대전대 부총장, 양영철 제주대 교수가 추대됐다. 기념사업회는 국가문화재 등록, 기념관 건립 등 핵심사업도 제시했다.

서귀포문화사업회 이석창(자연제주 대표) 회장은 “오성찬 작가의 석주명 실명소설 출판기념회를 마련하면서 기념사업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각계 인사들과 논의하며 전국 단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킨 계기가 됐다”고 기억했다. 이 회장은 석주명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기념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석주명기념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옛 제주시험장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우선 추진한 뒤 기념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등록문화재 확정을 계기로 석

주명기념관의 방향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리모델링과 석주명선생 관련 유물·자료 수집방안 등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구소가 위치한 마을에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지역활성화를 추진해나간다.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은 석주명 기념사업의 장기비전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주명기념관, 석주명거리, 나비생태공원, 나비축제, 석주명 학술제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인이 동경하는 아름다운 도시 서귀포에서, 나비처럼 살다간, 제주학 연구에 초석을 다진 석주명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차는 일이다.

그가 머물렀던 공간의 국가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석주명을 추억하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누는 공론의 장이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



‘나비박사 석주명의 Life Story’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는 돌의 역사입니다.

현무암으로 인생을 조각하는
돌쟁이 이창원 작가

글 / 김형미 미디어팀 사진 / 편집부

제주의 돌은 구멍이 많아 긴 시간동안 물을 머금고 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물은 햇빛을 받으면 서서히 마르며 돌의 색과 빛을 내어놓는다. 제주가 돌이고, 돌이 바로 제주이기 때문에 돌을 만지는 작업을 멈출 수 없다. 제주의 돌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이창원 작가를 한경면 저지리 돌공방에서 만났다.

스물아홉이던 1979년, 제주에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 다. 사실 서라벌예술대학에서 연극영화 공부를 시작했고, 살아온 과정 자체가 감각을 키우는 일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온 셈입니다.

1976년 제주에 오니 참 좋았습니다. 제주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었지요. 길이 없으니 사람들의 이동도 많지 않았습니 다. 생태는 물론, 관혼상제,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해녀의 물질이 참 장엄했습니다.

1981년부터 사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마을마다 다니면서 돌의 가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의 가치를 보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주의 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금은 추사 적거지가 새롭게 자리 잡았는데, 당시에는 조그마한 추사 적거지 입구에 대정 돌하르방이 있었습니다. 추사의 글도 읽었고, 그러면서 추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추사가 대정의 돌하르방을 보지 못했다면 필체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하르방은 천진난만하고, 때로는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으로도, 또 때로는 친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로 석상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인생을 거꾸로 살아도 되고, 순서를 바꿔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60년을 산다면, 몇 년씩 나누어서 사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를 할애해서 돌을 만지는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작업이 녹록지 않았지만, 직접 돌을 만지고 깨어보다 보니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제주의 돌을 만지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현무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무암은 독특합니다. 화강암과 나란히 놓고 본다면, 화강암은 햇빛이 있으면 눈이 부시고, 비를 맞으면 비를 금세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현무암은 비를 맞으면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현무암은 돌마다 색과 빛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공의 독특함도 작업을 재미있게 합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현무암은 제주의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제주의 돌, 현무암을 들여다보면 제주를 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주사람들에게 현무암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도에는 돌과 바람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돌은 돌담, 대문, 돌집,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릇, 화로 등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삶의 공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 보면 제주 사람들은 돌을 잘 다루었고, 늘 곁에 두고 보았던 존재입니다. 밭을 일구기 위해서 때로는 귀찮게도 생각했겠지만, 살면서는 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제주행, 제주의 무엇이 이들을 이끄는 것이지요.

제주도에 특히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변시지 작가와 그림 그리는 활동을 같이 했어요. 제주도에 와보니 변시지 작가의 작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가 작가의 심상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작가의 색채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곳입니다. 제주는 작가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잘 수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제주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주는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다만,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더욱 보듬는 일을 해나가야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과 인성을 가다듬는 것 역시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적당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저 역시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난 2007년에 YTN에서 환경조경박람회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작품을 30여 점 들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

레졌습니다. 제주의 돌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량 납품을 요구한 대기업도 있었지만, 제주의 돌은 그런 가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거절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돌과 나, 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제주의 돌을 만나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주의 돌과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의 순서를 바꿔서 살아오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 싫어진다면, 또 돌이 저를 싫어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돌의 명함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챙이입니다. 나를 낮추어도 좋습니다. 돌과 나는 큰 인연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답습하지 말자, 깨부수고 나아가자. 그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



이웃(저지예술인마을)에 사는
만화가 김경수 화백이 그린
이창원 작가의 캐리커처





가장 제주다움을 노래하다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글·사진 / 편집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취재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총 4회의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이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고씨 주택(高氏 住宅)’ 마당에서 열렸다.

시범공연 성격을 띤 이번 공연은 매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자리한 관객들의 흥겨운 호응과 함께 알찬 마무리를 지으며, 내년부터 계획 중인 연중 상설공연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제주 일노래의 참맛과 아울러 왜 가장 제주다움을 지키고 알려가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은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의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회 제주농요보존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연장소가 야외무대인 ‘고씨 주택(현 제주사랑방과 제주책방)’ 마당이었다는 점도 공연의 맛을 살리는 데 특정한 역할을 했다. 원래 ‘고씨 주택’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서 철거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제주의 옛집이다. 일제강점기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사용된 재료나 방식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식 건축물을 참고했지만, 집의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는

제주 민가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주 전통 초가와는 또 다른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근현대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과도기적 건축물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한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가 나서 이 주택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2017년 복원 공사를 마쳤다. 현재는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제주 전통의 일노래뿐 아니라 제주 근현대 가옥의 형태를 새로운 시선에서 엿볼 기회가 되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라 실내 공연이 부담스럽던 차에, 마침 트인 마당에서 별도의 음향시설이나 무대장치 없이, 마치 밭에서 삼삼오오 일하며 노래하듯 공연이 이뤄졌다. 공연을 향한 관중의 열기는 노래를 거듭할수록 높아갔고,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추임새로 박자를 맞췄다. 때론 공연자의 선창에 관객이 후렴구로 화답을 하며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는 흥겹고 소중한 시간을 나눴다.

공연을 기획하고 주최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고영림 회장은 공연 전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 계승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을 이야기했다.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며, 세대를 거듭해 이어져야 할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이라며, 과거 없는 현재가 없기에 나의 현재를 받쳐주는 과거의 것들을 보듬어볼 때 비로소 나의 현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통 계승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막상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젊은 세대들은 제주 전통의 것이 무엇인지, 제주의 일노래가 무엇인지 모를뿐더러 관심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점차 전통의 맥이 끊겨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대를 이어 전통을 계승해야 할 저희 중간세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하고 후손 된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설공연을 통해 제주 전통의 것을 알리고 넓혀가는 지속가능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을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재정으로나마 무대에 올려 잘 마무리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사실 이번 공연은 별도의 외부 예산지원 없이 공연 주최 측의 자부담과 자원봉사, 제주농요보존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순수 자선공연이었다는 점 또한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한 수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게 했다.

공연의 사회를 맡은 제주 연극인이자 세이레아트센터 대표인 정민자 씨는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제주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어머니들께서 부르던 대부분의 노래는 힘든 노동에 자꾸만 무너지는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제주의 인재를 키워내고, 역사를 만들어냈던 어머니들의 일상을 지탱해주던 노래”였다고 ‘제주 일노래’를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보유자 김향옥 씨의 선창으로 제주 대표민요 ‘너영나영’이 공연됐고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이어졌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고(故) 이명숙 명창이 전수한 노래로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나가며 불렀다. 마주 서서 노를 젓는 두 명의 해녀가 선소리하고 배에 탄 해녀들이 뒷소리하는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로, 제주도 토속민요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이다.

이어서 ‘망건 짜는 소리’, ‘출 비는 소리’, ‘마당질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등 제주의 대표적인 일노래들이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또 언제 이렇듯 원 없이 제주 옛 노래를 흥겹게 즐겨볼까 싶게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공연의 대미는 ‘땃 불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가 장식했다.

‘땃 불리는 소리’는 제주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된 대표적인 제주 일노래다. 바람이 많고 사질토인 제주 풍토는 밭을 갈아 파종한 후에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내리면 씨앗이 쓸려 내려가 농사짓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파종 후 들뜬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마소가 끄는 남태(흙덩이를 고르게 하거나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땅을 다지는 데 쓰는 툴러 형태의 나무 연장)로 밭을 밟을 때 불렀던 노동요로 제주의 척박한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 민요다.

제주, 제주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온전히 가사와 선율에 담아낸 제주 민요, 제주 일노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이번 공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쉬움이 남는 만큼 부디 내년에 계획 중인 연중 상설공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함께 하길 바라본다. ☺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고영림 회장



밧 벌 리 는 소 리

(밭 밟는 소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시김새)

위러러 월~ 월~ 월 월월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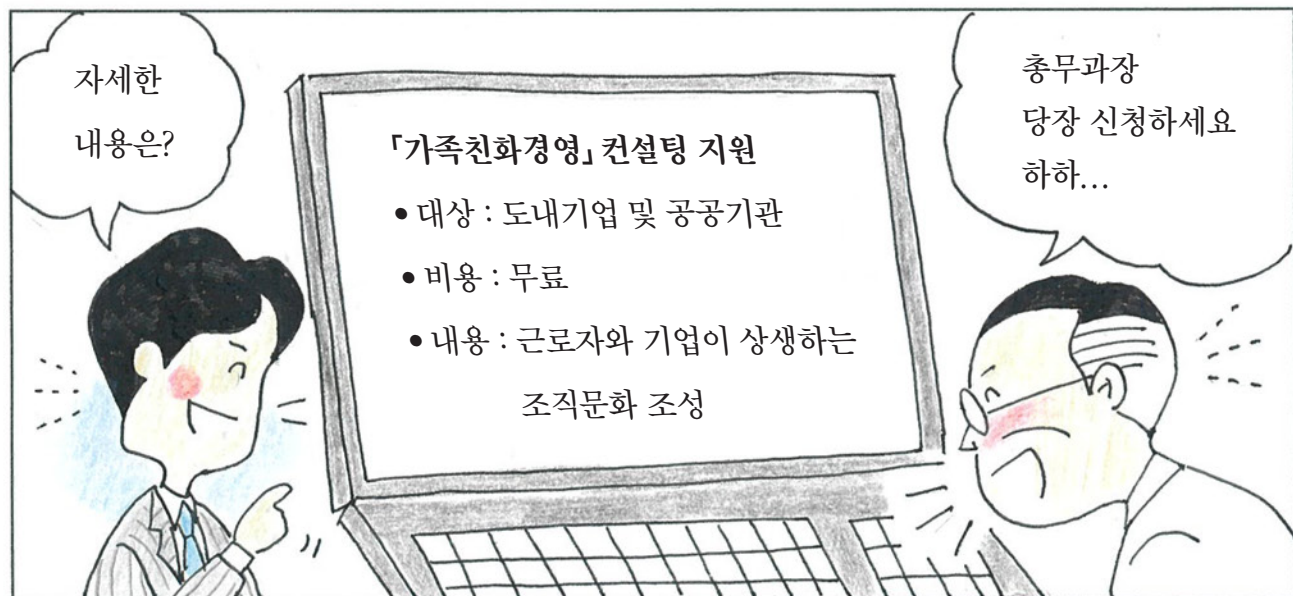
위~ 러러 월월 월월호민 고개숙이멍 돌아나온다

위~ 러러러러~ 위위허~~ 허~ 허허~ 월월월월~~~ 와~~ 월하령

1. 요몰더라 저몰더라 구석구석 마다 씨난디어시
 곱이창창 돌돌돌 돌아지멍 맨작하게 볼라도렌 호는구나
 (후렴) 위~ 러러러러~ 월~~ 월월월월~~ 와~ 아 아하~ 월하령
2. 수산봉에 뜬 구름은 비가 올 먹구름이 아니더냐
 산꼬지에 뜨는 해는 마가 가드와 가는 근본이더라 (후렴)
3. 제석할머님아 요조랑 불리건 남댕이랑 두자두치
 고고리랑 나컨 덩드렁 막개만씩 나게홉서 (후렴)
4. 저산아래 안개가 끼면 장남 두일뻬 열나홀 논다 호는구나
 사라봉 꼭대기에 뱃이나면 중이 머리가 벗어진다 호는구나 (후렴)
5. 물미오름 뜬구름은 날씨가 좋아가는 구름이 아니더냐
 큰넌아 죽은넌아 박달곰배 매여들엉
 큰병에영 죽은병에영 복쌍복쌍 뽀시멍나글라 (후렴)
6. 요몰더라 저몰더라 물장오리에서 놀던 물털아
 아무리 해여도 니가 호고야 말일
 노폰디 야친디 씨난디 웃이 곱이창창 돌돌돌 돌아지멍
 맨작하게 볼랑 밧벧졌디 나가는게 너의 구실이다 (후렴)
7. 일소장에서 놀던 물털아
 이소장으로 나강 물도 먹곡 출도 먹영 놀자 호는구나
 위~ 러러러러~ 월~~ 월월월월~~ 와~ 아 아하~ 월하령



* 「가족친화경영」이란? :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경영전략



*신청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www.jffsc.k)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독자설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열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가을호 <드림제주 21>에서 가장 좋았거나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드림제주 21>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는 상품 배송 용도로만 이용되며, 목적달성 후 파기(미 당첨자 정보 포함)합니다.
(단, 미동의 시 선정대상자 제외)

📷 사각 라인에 맞춰 사진 촬영 후 이메일(redlight17@korea.kr)로 보내주세요(접수 마감 : 2020년 10월 31일)

독자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았어요



영모원을 찾아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기사가 좋았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시설도 아닌데 민초들의 속마음을 아는지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권 님

아쉬웠어요



<소확행> 코너에서 개인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독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선 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0 가을 제28호
DREAM JEJU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 772671 727005
ISSN 2671-7271



03